

高等商業學校
修身類
共六冊
函架號
四

□ 9
247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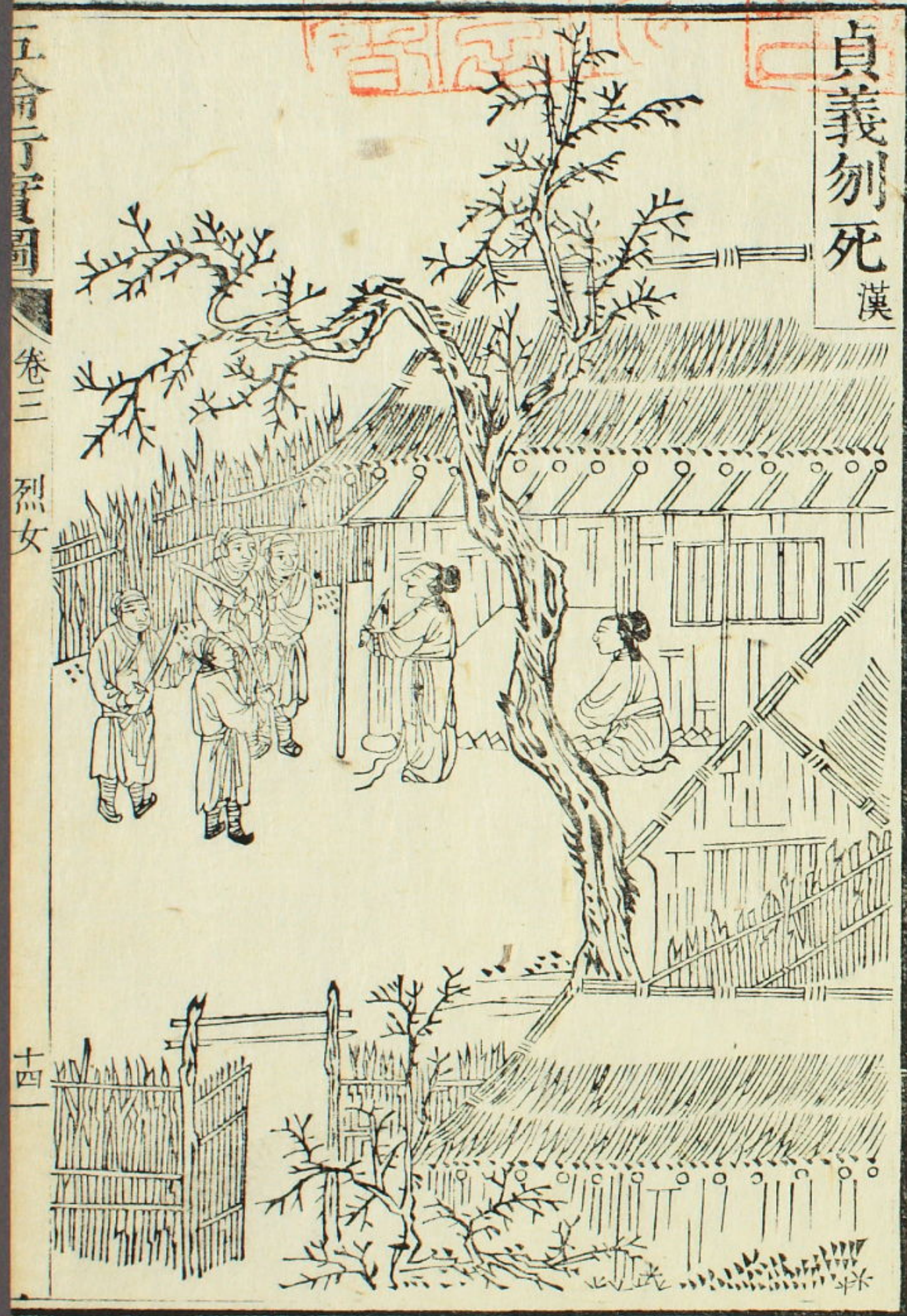


門 9-3
號 2470
卷 6-4

高宗皇帝
御覽
卷之六

貞義列死

漢



五命丁實圖

卷三

烈女

十四

高宗皇帝
御覽

高宗皇帝
御覽

高宗皇帝
御覽

樂羊子妻不知何氏女羊子嘗行路得遺金一餅還以與妻妻曰妾聞志士不飲盜泉之水廉者不受嗟來之食况拾遺求利以汙其行乎羊子大慙乃捐金於野而遠尋師學七年不返妻常躬勤養姑又遠饋羊子嘗有他舍雞謬入園中姑盜殺而食之妻對雞不餐而泣姑恠問其故妻曰自傷居貧使食有他肉姑竟棄之後盜有欲犯妻者乃先劫其姑妻聞操刀而出盜曰釋汝刀從我可全不從我則殺汝姑妻仰天而歎舉刀刎頸而死盜亦不殺其姑太守聞之捕殺盜而賜妻縑帛以禮葬之號曰貞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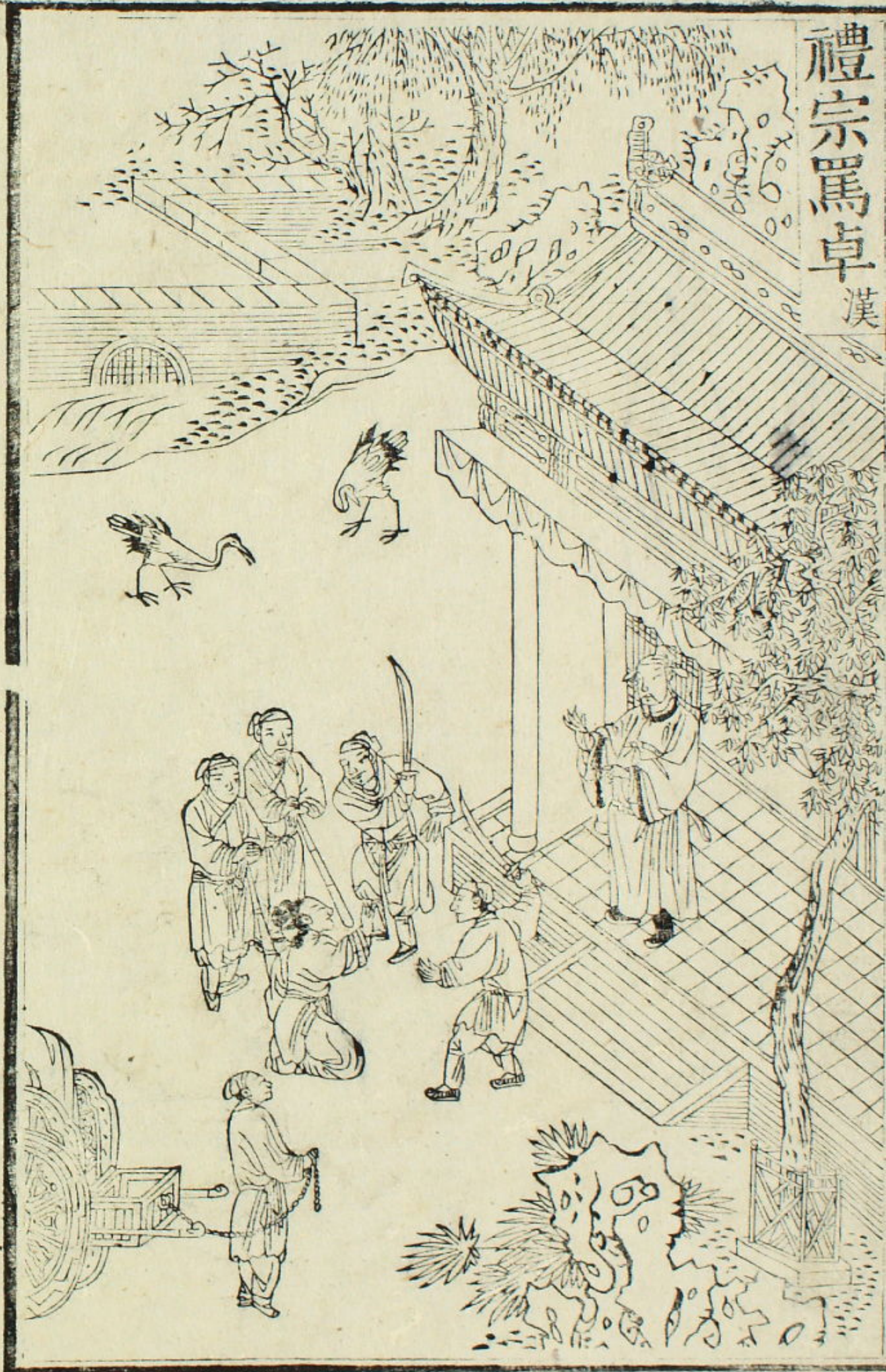
詩路拾黃金恥古人竊烹隣畜泣家貧姑能遷善
郎勤學幾諫從容婦德新 有盜來侵首劫姑謂
言從已可全軀舉刀刎頸摧肝膽義烈貞姿照畫

圖

한적악양지길히셔드른금흔딩이롤어더도라
와그쳐를준대체큰오더첩은드르니뜻잇는선
비는도천<sup>도적도조로일
힘지은물이라</sup>잇물을먹디아니하고청념
흔사름은차리<sup>허하며오라
흔말이라</sup>흔음식을먹디아니
흔다하느니엇디길히드른거솔주여그힝실을
더러이리오하느니양지크게붓그려금을내여비

리고스승을조차글비화칠년을도라오디아니
하니체식이미물지성으로봉양하며또먼리지
아비를공례하더니식이미니옷집들을잡아장
춧먹으려할시양주의체들을보고우러온오디
집이가난하여밥상에눔의집고기이시니이는
나의블호호미로다한대식이미붓그러고기
를비리니라후의도적이그쳐를범하고져하여
몬져그식이미를갑박하니체칼을들고나오거
늘도적이온오디네날을쫓디아니면네식이미
를죽이리라체하늘을우러러기리탄식하고칼

을드러면덜러죽으니도적이또한식이미를노
코갓더니고을원이도적을잡아죽이고네로써
영장하고일함하여온오디텡이라하니라



禮宗皇甫規妻不知何氏女規卒妻年猶盛而容色
 美董卓為相國承其名聘以駟輜百乘馬二十匹奴
 婢錢帛充路妻乃輕服詣卓門跪自陳請辭甚酸愴
 卓使侍者拔刀圍之而謂曰孤之威教欲令四海風
 靡何有不行於一婦人乎妻知不免乃立罵卓曰君
 羌胡之種毒害天下猶未足耶妾之先人清德奕世
 皇甫氏文武上才為漢忠臣君親非其趣使走吏乎
 敢欲行非禮於爾君夫人耶卓乃引車庭中以其頭
 懸軌鞭撲交下妻謂持杖者曰何不重乎速盡為惠
 遂死車下後人圖畫號曰禮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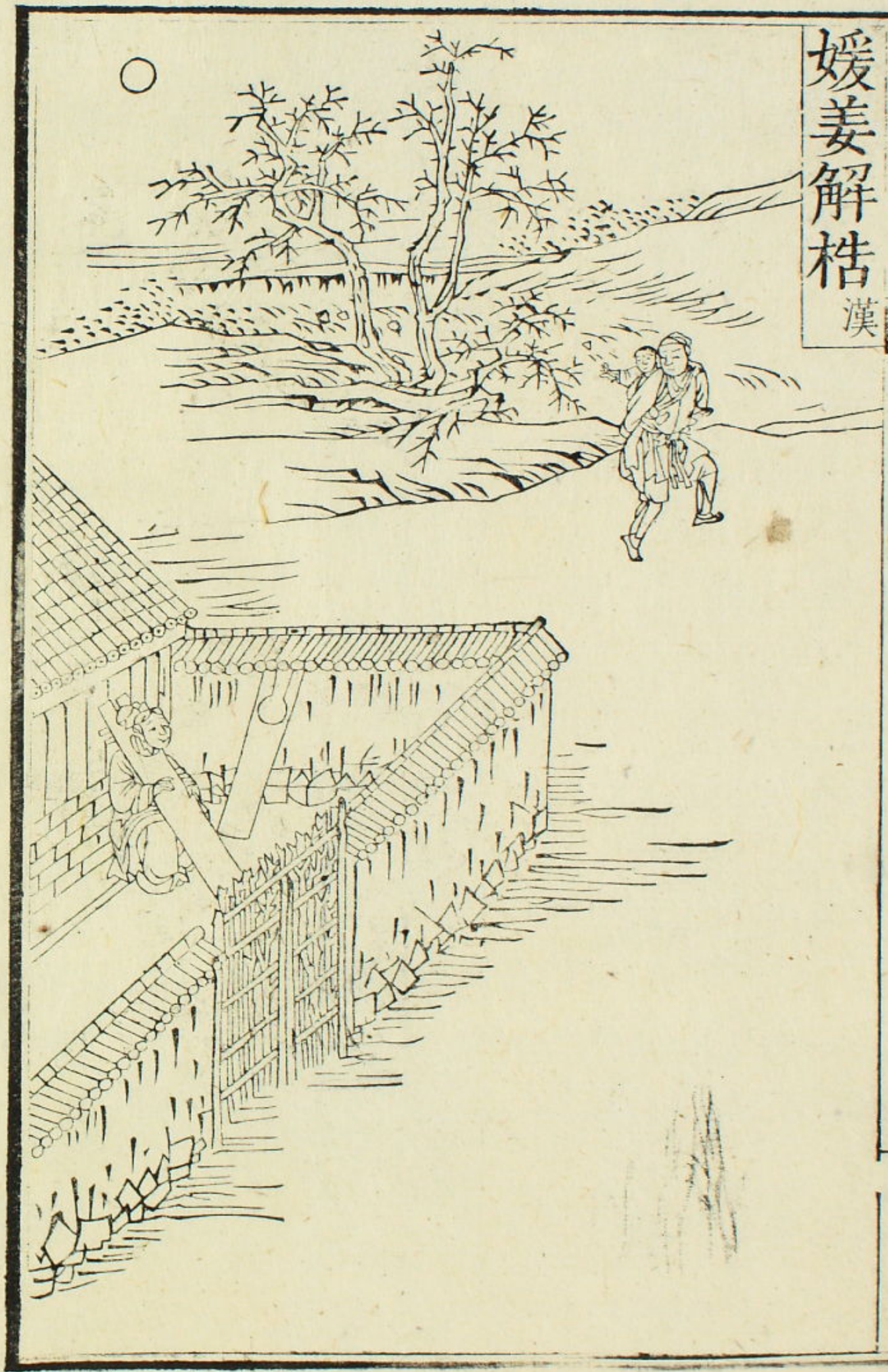
詩清德傳家節自純肯從兇豎浼吾身縱然四海
皆風靡威令難施一婦人 不畏庭前列劔鋒陳
辭立罵儘從容甘心一死全清節後世圖形號禮
宗

네종은한적황보규의체니귀죽으며네종이오
히려점고얼골이아름다오니반적동탁이그고
으믈듯고술위벽승과물이십필과노비와지믈
을주고다리거늘네종이탁의집의가슬피바니
탁이모든군스로응여곰에위웃고칼로저혀곧
오디내위엄이런하에헛헛나엇디흔겨집을

이괴디못응리오네종이응을면티못홀줄알고
셔셔탁을샤저저곧오디너노오랑개베라던하
를독해응고오히려족디못응여날을핍박응고
저응나나탁이대노응여네종의마리를술위채
에들고매로어즈러이티니네종이곧오디미이
려수이죽게응라응고인응여술위아래셔죽으
니후사름이그얼골을그리고일흔응여곧오디
네종이라응나라

五倫行實圖
媛姜解桔

漢



盛道妻趙氏字媛姜建安五年益部亂道聚眾起兵
事敗夫妻執繫當死媛姜夜中告道曰法有常刑必
無生望君可速潛逃建立門戶妾自畱獄代君塞咎
道依違未從媛姜便解道桎梏爲齋糧貨子翔年五
歲使道攜持而走媛姜代道持夜應對不失度道已
遠乃以實告吏應時見殺道父子會赦得歸道感其
義終身不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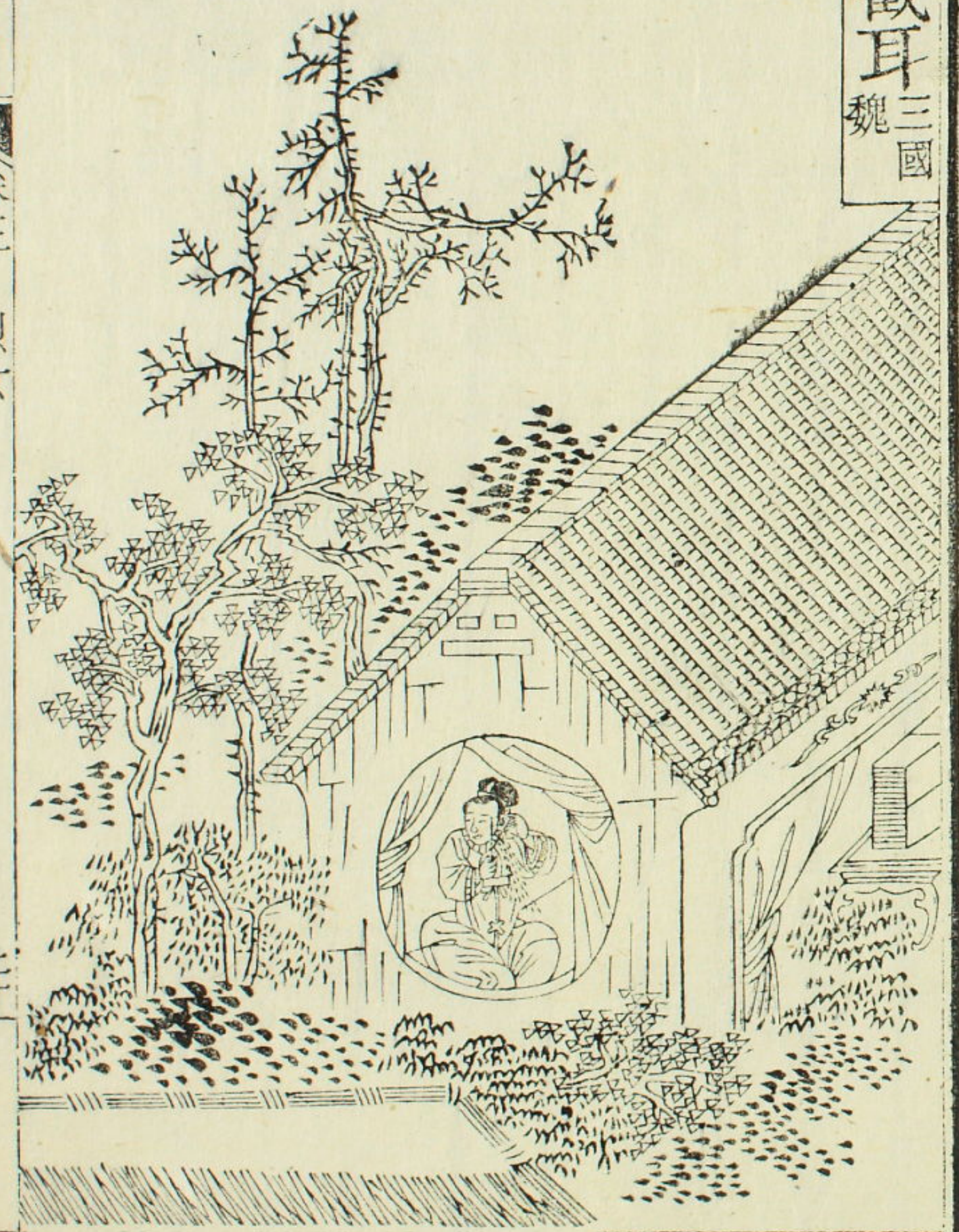
詩淑人趙氏字媛姜寒咎捐生最可傷父子俱全
門戶立終身不娶義難忘 盛道胡爲欲弄兵渾
家繫獄勢難生賢媛代戮存宗祀竹帛千秋有令

名

한적성도의쳐도시의조는원강이니성되죄에
 걸려부체옥에갓터장초죽게되니원강이밤에
 도드러닐러곧오디이제는살길히업스니그디
 는셜리도망하여문호를보전하라내그디를디
 신하여옥에머물리라하고지아비칼을벗기고
 량식을빠주어어린아들을드리고드라나게하
 고원강이지아비먼리가물헤아리고실로써고
 하여죽으니후에성되대샤를만나도라와몸이
 밋도록다른안히를취티아니하니라

令女截耳

三國魏



曹爽從弟文叔妻夏侯文寧之女名令女文叔蚤死服闋自以年少無子恐家必嫁已乃斷髮爲信後家果欲嫁之令女復以刀截兩耳居止常依爽及爽被誅曹氏盡死文寧憐其少執義又曹氏無遺類冀其意阻乃微使人風之令女泣曰吾亦惟之許之是也家以爲信防之少懈令女竊入寢室以刀斷鼻蒙被而臥母呼不應發被視之血流滿床席舉家驚惶往視之莫不酸鼻或謂曰人生世間如輕塵棲弱草耳何辛苦乃爾且夫家夷滅已盡欲誰爲哉令女曰聞仁者不以盛衰改節義者不以存亡易心曹氏盛時

尚欲保終况今衰亡何忍棄之禽獸之行吾何爲乎

詩斷髮無他露至誠爺孃何欲奪其情伺間劓仍蒙被血滿床頭孰不驚 夫家夷滅復依誰此是常情所忽時令女不將衰與盛始終如一行無虧

위나라 조상의 손아으 문숙의 처는 하후문령의 딸이니 일흠은 녀네라 문숙이 일즉 죽으니 녀네 스스로 생각호되 나히 점고 지식이 업스니 본 집에서 리가 홀일가 두려야 마리 털을 버혀 혀을 띄우엇더니 후에 어버이 과연다시 서방 맞치

고려하거늘네 두귀를버히고 조상의게의지
하엿더니 상의집이 멸하매 어버이 녀를 불상
이 너겨의집이 망하여 시니 그 빛이 후다를가하
여 년주시사름으로 하여 품녕녀를다래니 녀네
거짓허락하고 마만이 자는방에 드러가갈로코
를버히고니 불을무릅쓰고 누어셔어미브르디
디답디아니하거늘니 불을들고보니 피흘러자
리에 마득하엿는디라 온집이 경황하여가보고
코히식여아니리업스니 후이 곧오디사름이세
상에이시매가비야온 뒷글이 약흔플에부치임

곳거늘엇디 괴로오물더러드시하느뇨또의집
이다망하여시니 불을위하러하느다녕네곧오
디어딘자는성쇠로절을못치디아니코의흔자
는존망으로모음을밧고디아니하느니의집이
전성할때에도오히려보전하여종신코져하거
든하물며망하여시니엇디차마브리리오금슈
의힘실을나논아니하리라하더라

王氏感燕南北朝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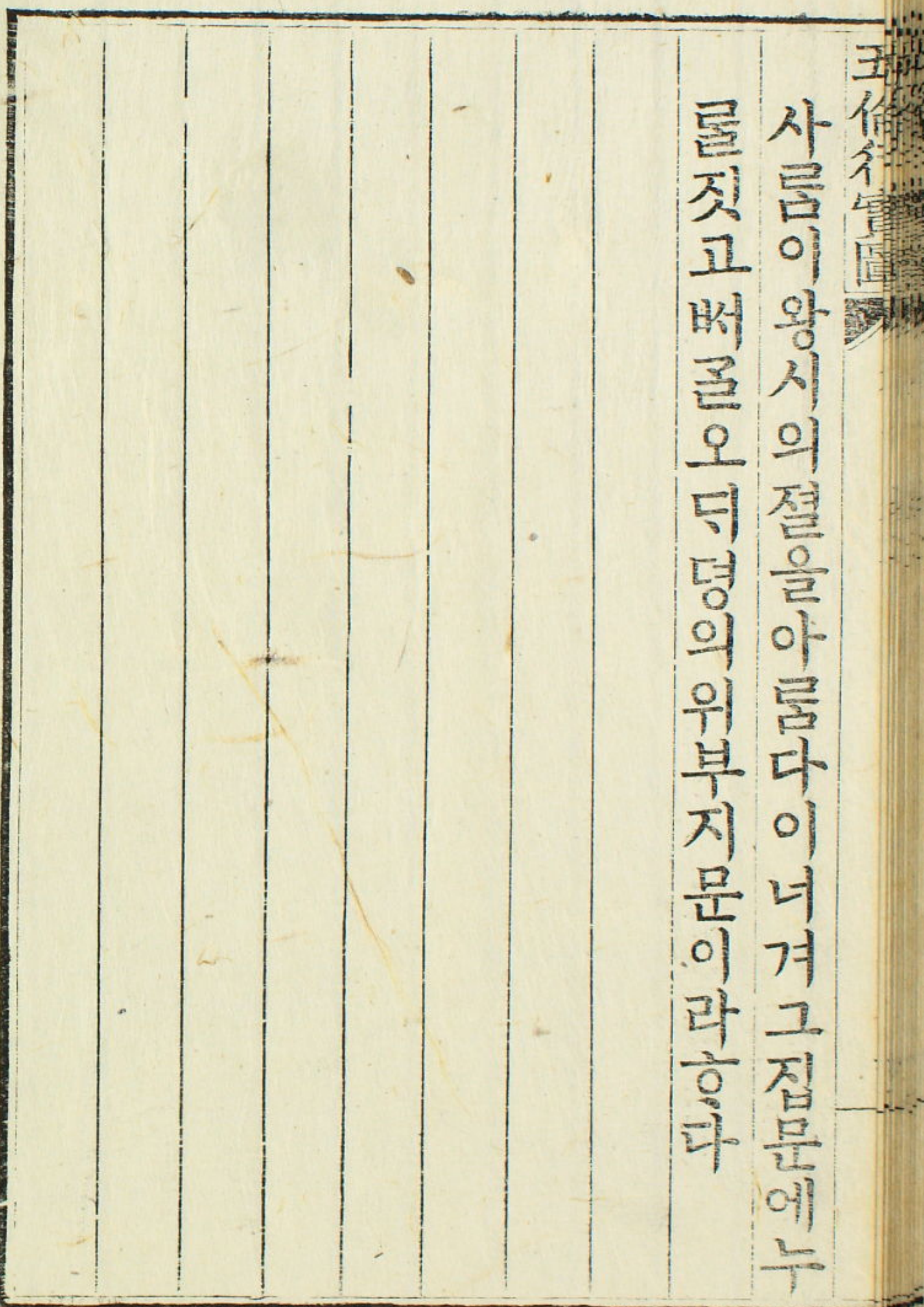
王氏霸城王整之姊嫁為衛敬瑜妻年十六而敬瑜
亡父母舅姑咸欲嫁之乃截耳置盤中為誓乃止遂
手為亡壻種樹數百株墓前柏樹忽成連理一年許
還復分散女乃為詩曰墓前一株柏根連復並枝妾
心能感木頽城何足奇所住戶有鷺巢常雙飛來去
後忽孤飛女感其偏棲乃以纒繫脚為誌後歲此鷺
果復更來猶帶前縷女復為詩曰昔年無耦去今春
猶獨歸故人恩既重不忍復雙飛雍州刺史西昌侯
藻嘉其美節乃起樓於門題曰貞義衛婦之閭又表
於臺

詩年少夫亡最可憐
爺孃欲嫁節彌堅
跣行剪髮終無改
凜冽高風罕比肩
雌燕依棲節婦堂
孤飛往復數年強
主人已逝竟誰托
不食哀鳴死豕傍

왕시논송나라위경유의체니나히십육세에경
위죽으니부모와식부되리가흔이려호대왕시
스스로귀를버히고밍세흔여리가흔디아니흔
고지아비무덤알피손으로나모수빅जू를심것
더니그등жат남기홀연히년리 두나모결이흔
더년호거사라 되엇다
가흔히만에도로는호이니왕시글을지어올오

더묘전에흔쥬남기불희년흔고가지아올랐도
다첩의모음이능히남글감동흔게흔니귀량쳐
의성을문희치미엇다족히귀특흔리오흔엇더
라잇는곳창우히쳐비깃드려미양쌍쌍이왕니
흔다가홀연이암쳐비외로이느라든니니왕시
감창흔여실로져비발에미여보람흔엇더니
년에다시와오히려실을써엇거늘왕시다시글
을지어올오더벧히에빠이업시가더니을봄에
오히려홀로도라오도다고인이은경이둥흔니
차마다시쌍으로느다아니흔는도다흔니그써

사람이 왕시의 절을 아름다이 너겨 그 집문에는 누
를 짓고 베풀오 더덩의 위부지문이 라 한다



崔氏見射 隋



趙元楷妻崔氏甚有禮度宇文化及之反元楷隨至河北將歸長安至滏口遇盜僅以身免崔為賊所拘請以為妻崔曰我士大夫女為僕射子妻今日破亡自可即死終不為賊婦羣賊毀裂其衣縛於牀簣之上將陵之崔懼為所辱詐之曰今力已屈當受處分賊遂釋之妻因取賊刀倚樹而立曰欲殺我任加刀鋸若覓死可來相逼賊大怒亂射殺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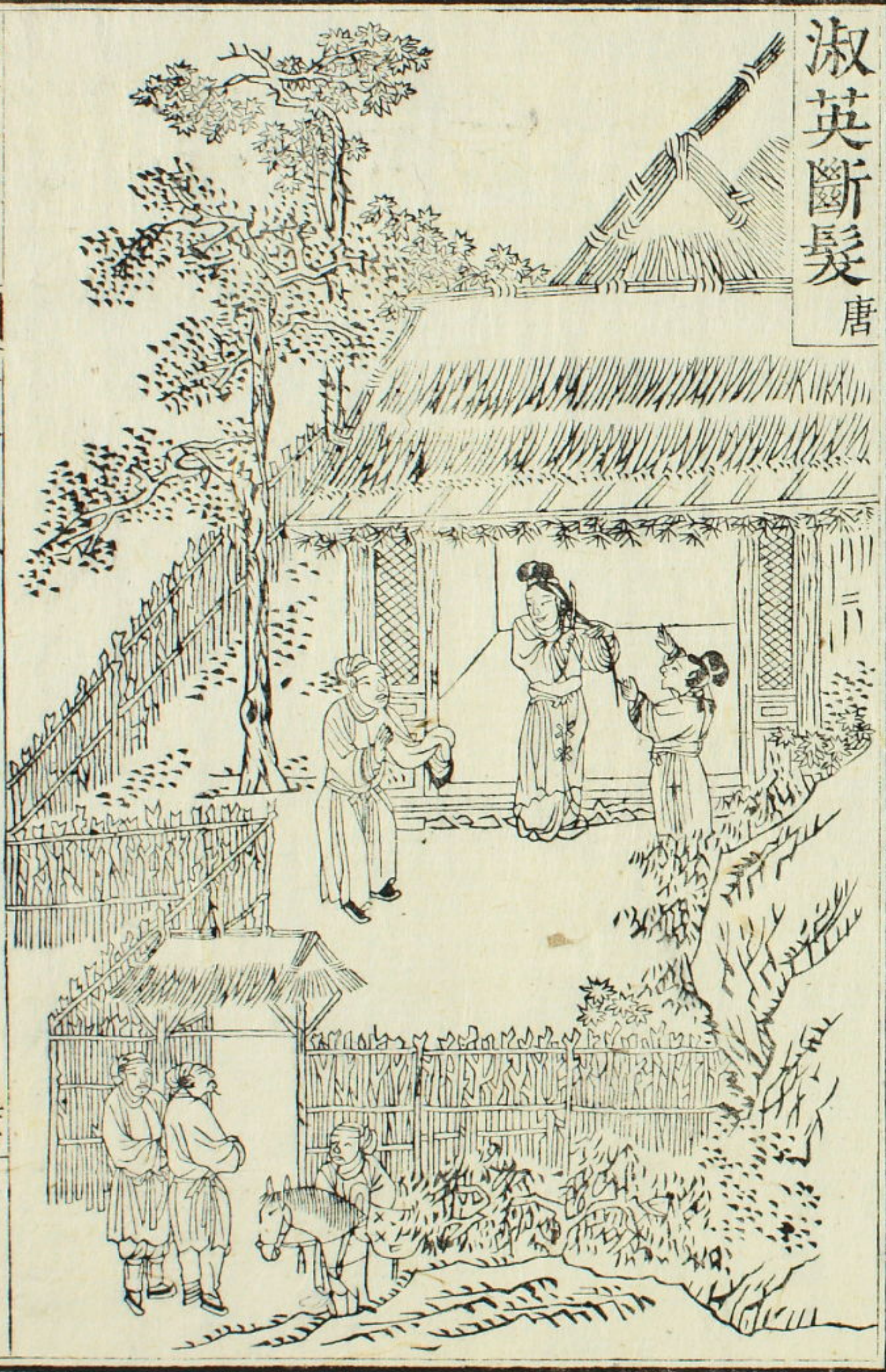
詩流離避賊勢蒼皇滏口途中遇犬羊陵辱百端終不屈凜然高節逼秋霜 權辭只為力難支視死如歸不可追惟有當時一株樹年年蕭瑟使人

悲

슈나라도원희의쳐최시일즉네법이잇더니우 문화급의난리에부체피란하야당안으로오다가길히셔도적을 만나지아비논계요면하여다 라나고최시잡히인배된다라도적이청하여안 히삼고져하거늘최시곧오디나는스래우의설 이오지상의며느리라죽을디언정엇디도적의 겨집이되리오모든도적이최시를상우히결박 하고괘박하고져하거늘최시욕을볼가두려거 좃곧오디이제논힘이굴하여시니너를조차리

라하니도적이프러노커늘최시도적의칼을아
사쥐고남글의지향여셔셔곧오디날을죽이면
내예셔죽으려니와날을검박함면이칼로디를
거시니죽으려함거든갓가이오라하니도적이
대노함여어즈러이쏘아죽이니라

淑英斷髮 唐



李德武妻裴氏字淑英安邑公矩之女以孝聞鄉黨
德武在隋坐事徙嶺南時嫁方踰歲矩表離婚德武
謂裴曰我方貶無還理君必儷他族于此長訣矣答
曰夫天也可背乎願死無他欲割耳誓保姆持不許
夫姻婭歲時朔望裴致禮惟謹居不御薰澤讀列女
傳見述不更嫁者謂人曰不踐二庭婦人之常何異
而載之書後十年德武未還矩決嫁之斷髮不食矩
知不能奪聽之德武更娶爾朱氏遇赦還中道聞其
完節乃遣後妻爲夫婦如初

詩嫁方踰歲樂初酣坐事移天配嶺南長訣一言

眞激切不歸他族死猶甘 剪髮焦心守一閨胡
爲德武納他妻赦還中道聞完節相好如初復與
齊

당나라니 덕무의 처비사의 조는 숙영이니 안음
공비구의 설이라 효행으로 향당에 유명하니
덕위죄에 걸려 남의 귀향갈시이에 숙영의
셔방마 조디게 요흔히라 아비상소하니 이
니 덕위숙영드러 불러 온디 내이제 귀향가매
도라 올리 업스니 그디 반드사 다른 사람을 조출
거시니 오닐영결호노라 숙영이 온오디 지아비

는하늘이라엇디비반하리오죽어도다른뜻이
업소리라하고귀를버혀팅세하고저하거늘좌
위붓드리말리다미양세시면식거리게문안하
고단장을폐하고털너털을뵈다가리가아니호
사름의루한일을보고골오디두사름의쌀을뵈
디아니하거늘부인의응당한일이니므어시이
상한일이라하고척에올렸는고하더라십년이
더나디지아비도하오디못하니아비결단하거
리가하이하하거늘숙영이마리털을버히고밥
을번디아니하니아비그뜻을다침내앗디못하

엇더니덕뫼덕소에셔다른처를취하엿다가후
에샤를만나노히여도라와등노에서숙영의슈
절호를알고후쳐물내여보내고숙영과다시부
뷔되여네와웃티사니라

王倫行實圖
魏氏斬指



樊彥琛妻魏氏揚州人彥琛病魏曰公病且篤不忍
公獨死彥琛曰死生常道也幸養諸孤使成立相從
而死非吾取也彥琛卒值徐敬業難陷兵中間其知
音令鼓箏魏曰夫亡不死而逼我管絃禍由我發引
刀斬其指軍伍欲彊妻之固拒不從乃刃擬頸曰從
我者不死魏厲聲曰狗盜乃欲辱人速死吾志也遂
見害

詩合卷曾成偕老期良人乘化盍相隨佩銘幸養
諸孤語弔影當時獨自悲 遭時不幸陷兵中逼
使彈箏欲玷躬斬指抗辭終遇害畱名千古播貞

風

당나라번언침의쳐위시는양주사람이니언침
 이병들매위시곧오디공의병이등하니내차마
 홀로사라공의죽는양을엇디보리오언침이곧
 오디스싱은넋넋한일이니그디논어린조식들
 을길러성님후미올흔디라살와죽으믄나의비
 라는배아니라언침이죽은후에위시난리롤만
 나도적의게잡히이니도적이그음판알들듯고
 징을드라하니위시곧오디지아비롤살와죽디
 아넋다가날을풍뉴로핍박하니이논나의타시

라하고그손가락을버히니도적이인하여안히
 삼고져하여칼을목에견우고저혀곧오디날을
 조차면죽이디아니하리라위시크게썩지저곧
 오디개마튼도적놈아사름을겁욕하니셀리죽
 이미나의쓰디라흔대도적이인하여죽이니라

李氏負骸五代



李氏王凝妻凝家青齊之間為虢州司戶參軍以疾卒于官家素貧一子尚幼李携其子負其遺骸以歸東過開封止旅舍主人見其婦人獨携一子而疑之不許其宿李顧天已暮不肯去主人牽其臂而出之李仰天長慟曰我為婦人不能守節而此手為人執邪不可以一手并汚吾身即引斧自斷其臂路人見者環聚而嗟之或為之彈指或為之泣下開封尹聞之白其事于朝官為賜藥封瘡厚恤李氏而答其主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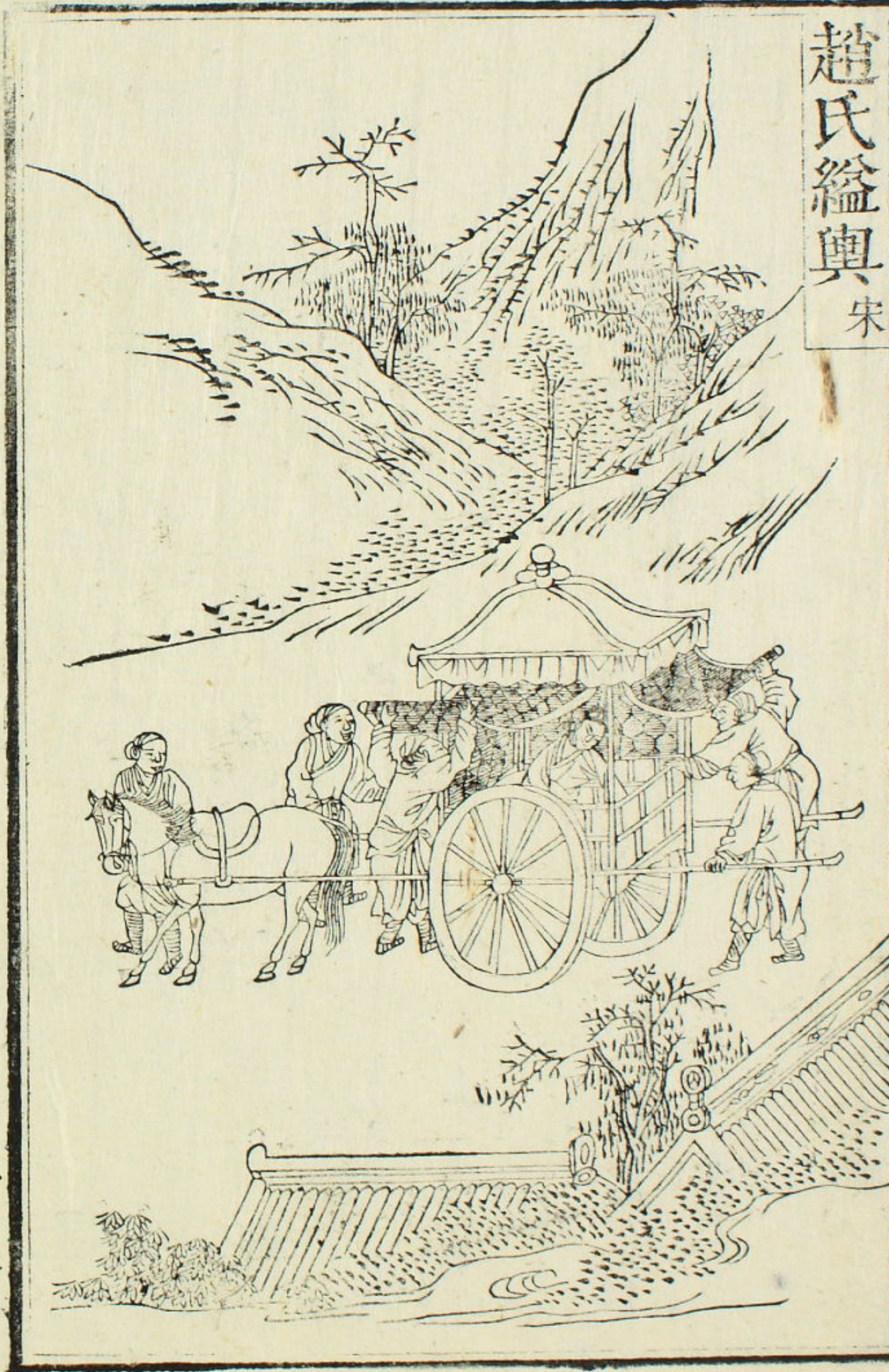
詩參軍一日卒於官携幼持骸道路難旅舍日曛

遭辱斥奮然長慟涕沈瀾 執節無如斷臂難行
人環視指爭彈當時賴有開封奏恩命翻爲聳聽
觀

니시는오디적왕응의체니응이픽주소호벼슬
흐엇다가임소에셔죽으니집이가난흐고어린
아들호나히잇는디라니시아들을잇글고지아
비히골을지고도라을서키봉부싸히니르러날
이저므러숫막에들려흐니쥬인이그형식을고
이히너겨손목을잇그러내티니니시하늘을우
러러탄식하여곧오디내겨집이되여님의게손

을잡히니엇디호손으로써온몸을더러이리오
흐고돛피로그풀을써어버리니보는사람이눈
물아니흘리리업더라키봉부윤이듯고그일을
도령의솔와약을주어풀에브르고그쥬인을죄
주니라

趙氏縊輿 宋



趙氏貝州人王則反聞趙有殊色使人劫致之欲納
 為妻趙日號哭慢罵求死賊愛其色不殺多使人守
 之趙知不脫乃給曰必欲妻我宜擇日以禮聘賊從
 之使歸其家家人懼其自殞得禍于賊益使人守視
 賊具聘幣盛輿從來迎趙與家人訣曰吾不復歸此
 矣問其故答曰豈有為賊污辱至此而尚有生理乎
 家人曰汝忍不為家族計趙曰第無患遂涕泣登輿
 而去至州廨舉簾視之已自縊輿中死矣尚書屯田
 員外郎張寅有趙女詩

詩美色從來禍所嬰賊修婚禮強來迎登輿泣與

五倫行實圖

家人訣汚辱如斯不苟生 就死從容世所難屹
然高義重於山莫言殊色爲身崇畱得香名汗竹
間

도시논송나라패쥬사름이니반적왕측이그얼
골고으믈듯고겁박하여안히삼고져하니도시
날마다을고구저죽기룰구호되도적이그식
을앗겨죽이다아니하고사름으로덕희니도시
죽을틈이업서소겨곧오되날을안히삼고져하
거든릭일하여네로마즈라흔대도적이고디드
러집으로도라보내고남치하고술위와추종을

성히하야도시룰드러올셔도시집사름과영결
하여곧오되내다시도라오디못하리라집사름
이그연고를무르니곧오되엇디도적의게이러
트시욕을보고살리이시리오흔대집사름이곧
오되네차마집의화를싱각디아니하노다도시
곧오되근심말라하고눈물을썩리고술위에올
라가더니집의다드라발을것고보니볼셔술위
속에목미여죽엇는디라그썩사름이도녀시란
글을지으니라

五倫行實圖

卷三 烈女

三十五

五倫行實圖

徐氏罵死

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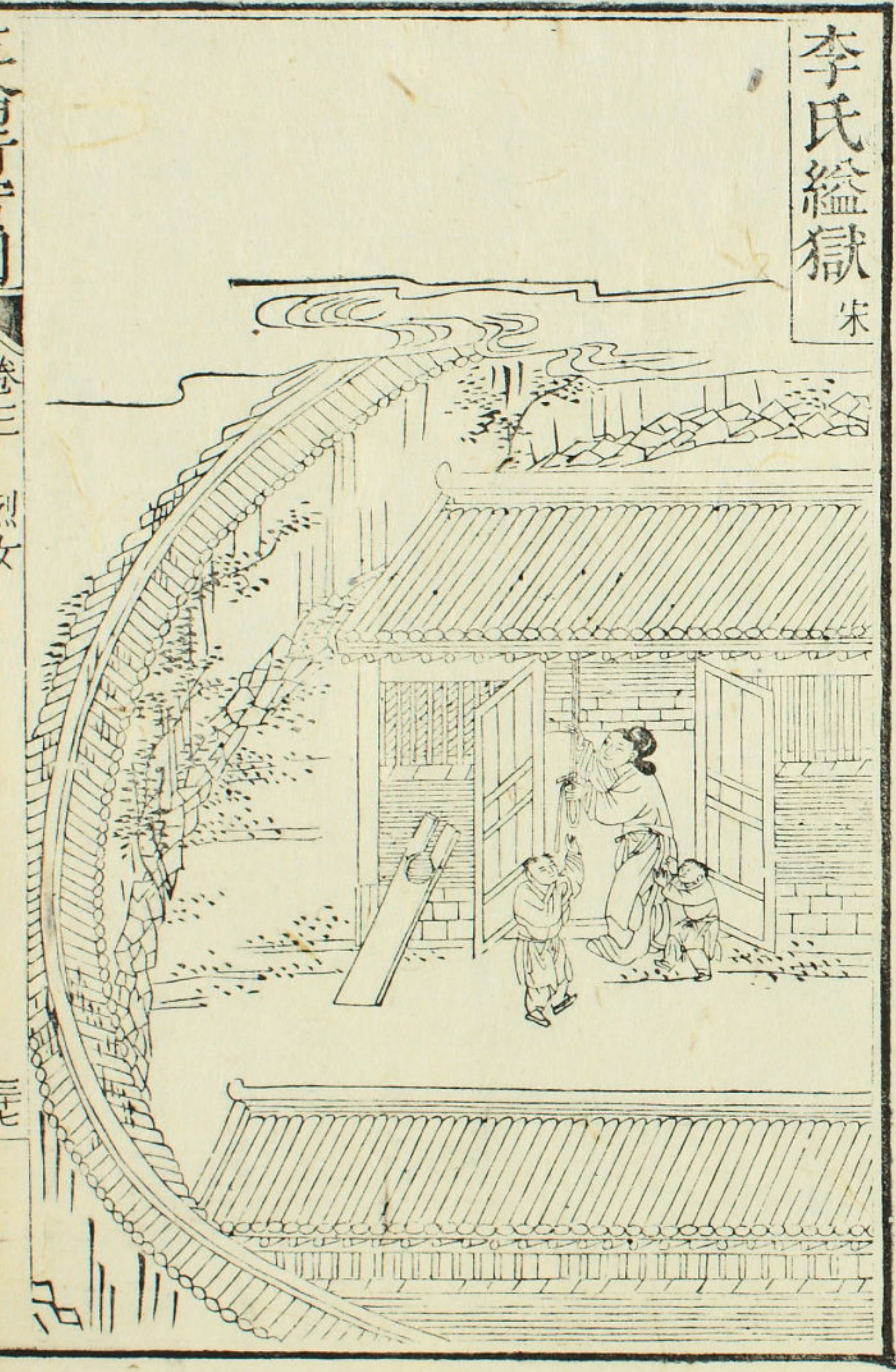


徐氏和州人閔中女適同郡張弼建炎三年金人犯
維揚官軍望風奔潰多肆虜掠執徐欲汙之徐瞋目
大罵曰朝廷蓄汝輩以備緩急今敵犯行在既不能
赴難又乘時爲盜我恨一女子不能引劍斷汝頭以
快衆憤肯爲汝辱以苟活耶第速殺我賊慚恚以刃
刺殺之投江中而去

詩官軍奔潰自相屠徐氏蒼皇被執拘不獨當時
全淑行美名今日上新圖 大罵言辭出至忱官
軍將卒獨何心至今江水鳴嗚咽多少行人痛憤
深

셔시논송나라 화주사름이니 당필의체 되엿더
 니이쎄에금인이터드러오니 관군이패하야드
 라날시두로노략하야셔시를잡아핍박하교져
 하거늘셔시눈을부릅뜨고꾸지저곤오디나라
 히너희를길러금흔쎄에쓰러하셔거늘이제도
 적이나라흔범호디능히구티못하교도로혀어
 즈러오믈인하야도적이되니내흔너저라너희
 마리를버히디못하믈하하니엇디네게욕을
 보고구차히살리오설리날을죽이라하대도적
 이붓그리고노하야죽여강물에더디고가니라

李氏縊獄 宋



謝枋得之妻李氏安仁人色美而慧通女訓諸書嫁枋得事舅姑奉祭待賓皆有禮枋得起兵守安仁兵敗逃入閩中武萬戶以枋得豪傑恐其扇變購捕之跟及其家人李携二子匿貴溪山荆棘中採草木而食至元十四年冬元兵蹤跡至山中令曰苟不獲李屠而墟李聞之曰豈可以我故累人吾出事塞矣遂就俛明年徙囚建康或指李言曰明當沒入矣李聞之撫二子而泣左右曰雖沒入將不失爲官人妻何泣也李曰吾豈可嫁二夫耶顧謂二子曰若幸生還善事吾姑吾不得終養矣是夕解裙帶自經獄中死

詩良人兵敗走閩中匿跡山林固守窮聞說里閭將累及翻然就獲自當躬 拘囚二載欲捐軀泣訣諸兒善事姑志節凜然堪勵俗也宜褒獎繪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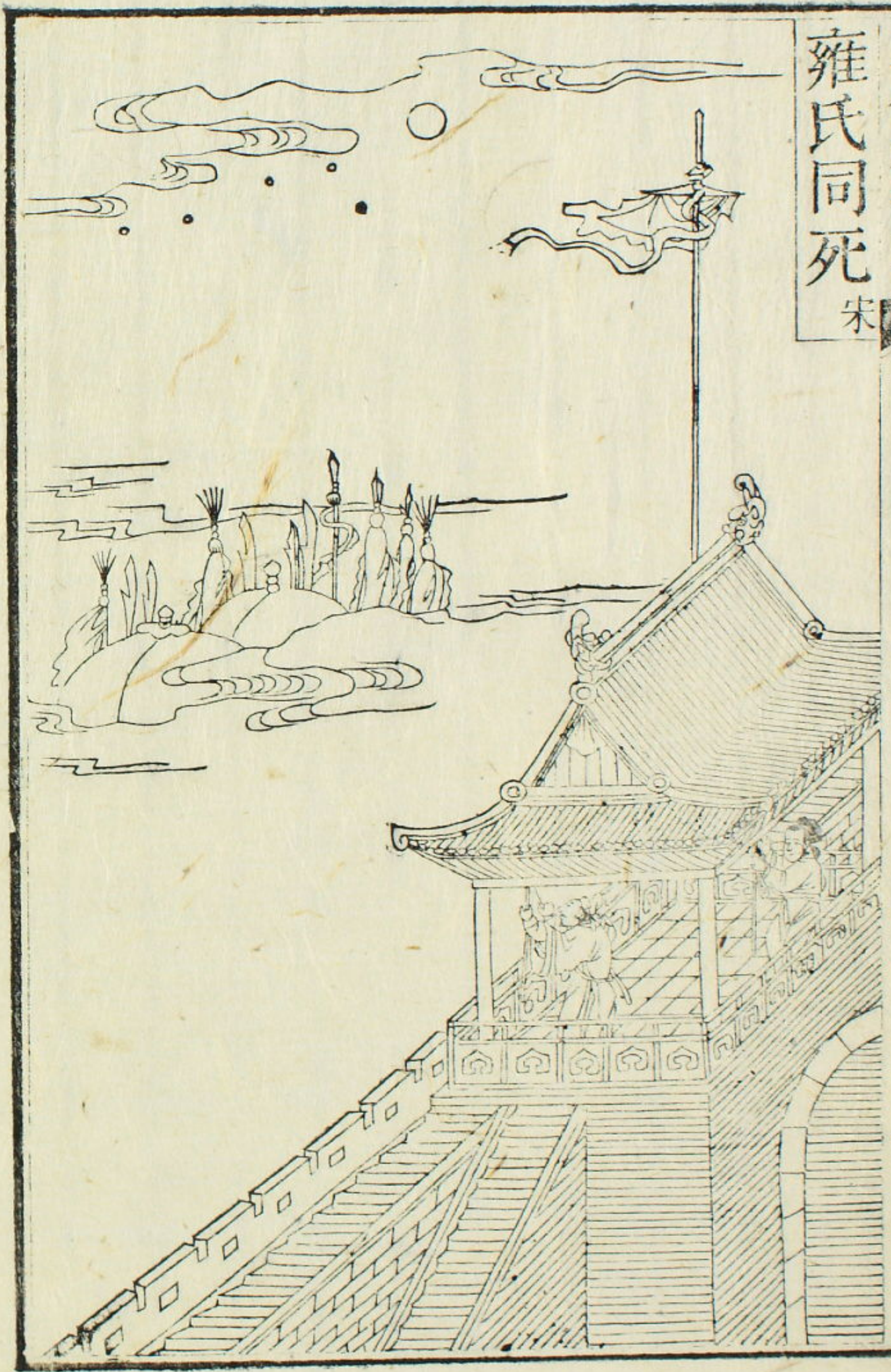
송나라사방등의쳐니시논안인사람이니얼골이아름답고성품이총혜하여넋글을아닌디라 구고를섬기고제스를밧드러다네도에합흥터니방득이도적과빠호다가패하여드라나니도 적이간덕를차자집의니르니니시두아들을잇글고산등에드러가가석덤블속에숨어서풀을

키여 먹고 잇더니 도적이 쏘라와 산등에 니르러
녕하여 곧 오더니 시를 잡디 못하면 온 입을 들다
못디르리라 니시듯 곧 오디 엇디 내 혼몸으로
여러 사름이 죽게 하리오 하고 나와 사르잡히니
도적이 옥에 가도 앗더니 사름이 니시를 마르치
며 날 오디 니일은 맛당이 몰입하리라 하대니 시
이 말을 듯고 두 아들을 어르문 지며 울거늘 좌위
곧 오디 비록 몰입하나 버슬하느사름의 안히 될
거시 니 엇디 우느노니 시 곧 오디 내 엇디 두지 아
비를 섬기 리오 하고 두 아들 두려날 오디 너히 힘

혀사라 도라가 거든 식어 미를 잘 섬기라 하고 이
날져 념에 치마 선으로 목을 미여 옥등에서 죽으
니라

五倫行實圖
雍氏同死

宋



雍氏池州通判趙卯發妻元兵徇池州卯發知事不
濟謂雍氏曰城將破吾守臣不當去汝先出走雍曰
君爲命官我爲命婦君爲忠臣我獨不能爲忠臣之
婦乎寧相從於地下卯發笑曰此豈婦人女子所能
也雍曰吾請先君死卯發笑止之明日乃散其家貲
與弟姪僕婢悉遣之及師薄城卯發晨起書几上曰
君不忍叛城不敢降夫婦同死節義成雙遂與雍氏
盛服同縊從容堂卯發始爲此堂名以從容及兵劇
指所題扁曰吾必死於是明日伯顏領兵入城深歎
惜之命具棺衾合葬祭其墓而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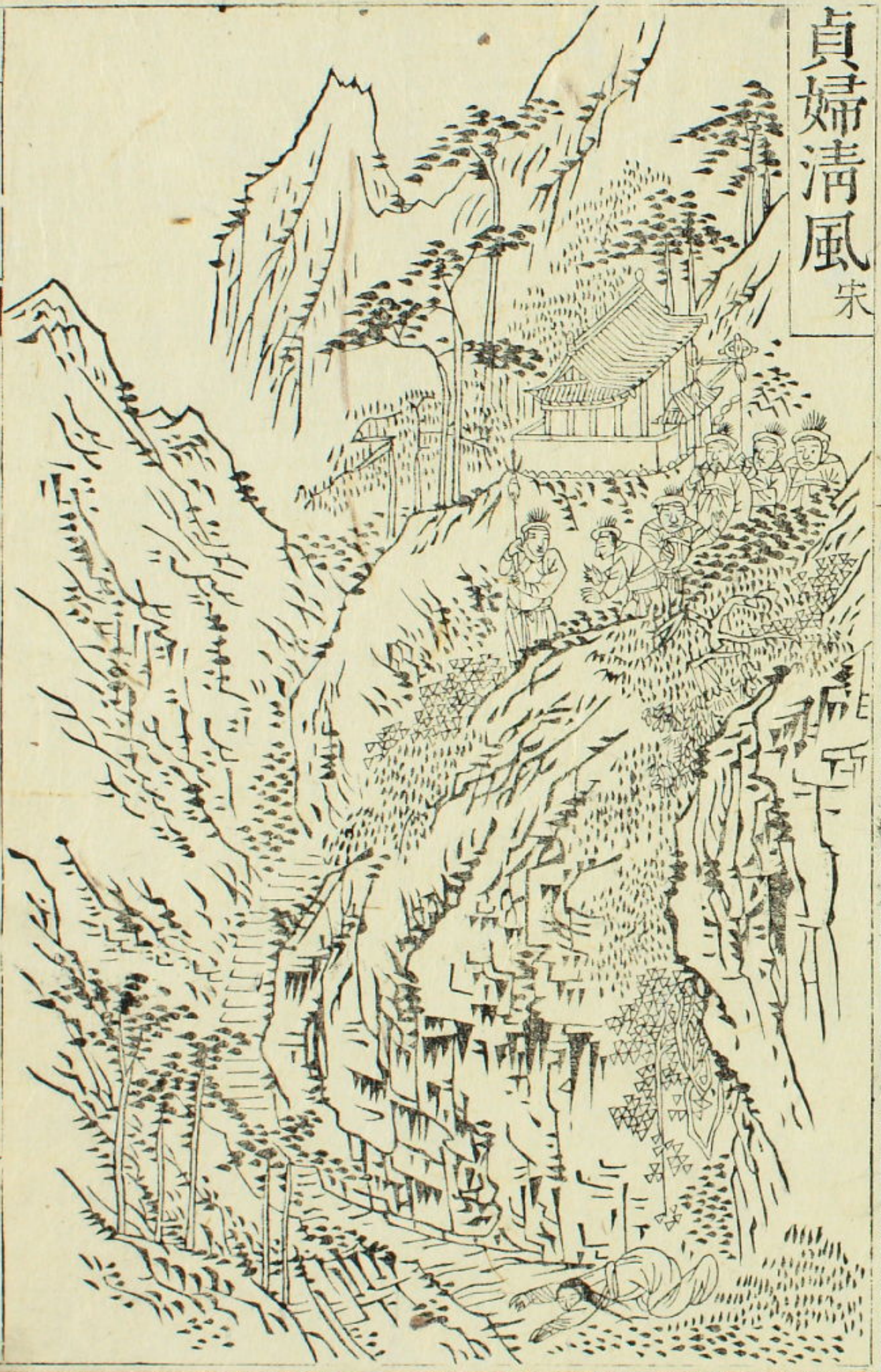
詩元兵南下陷州城去住分明繫死生命婦命官
同日縊相從地下是真情 池州倅趙與妻雍節
義成雙罕躡蹤大宋人爲大宋鬼從容堂上自從
容

응시논지쥬통판도묘밭의체니원나라군시지
쥬를틸시묘밭이응시드러닐러존오디성이파
하게되어시니나는사덕힌신해라가히브리고
가디못하러니와그디논몬져드라나라훈대응
시존오디그디통신이될딘대네엇디통신의안
히되디못하러리오훈가지로죽어디하의가조초

리라묘밭이우어존오디이엇디녀주의능히훈
배리오응시존오디청권대몬져죽으리라묘밭
이웃고말넛터니이튼밭가산을흐터거리와종
들을논화주어보내고도적이성밭기급히니르
거늘묘밭이새베니러나셔안우히글을써존오
디님군을차마비반티못할거시오성을가히항
복디못할디라부뷔훈가지로죽어절의를쌍으
로닐우노라하고드디여응시로더브리종용당
이라하논집의셔흙씨목미여죽으니이당은묘
밭이비로소짓고일흙을종용이라하엇더니일

이 급후매당우희현판을 무려 큰 오디내반드
시여괴셔죽으리라 후고과연종용히죽어당일
흠을맛치니라 원당슈빅안이성에드러와보고
탄식후기를마디아니후고판박을 초와부쳐
를합장후고무덤에제후니라

貞婦清風 宋



王貞婦夫家臨海人德祐二年冬元兵入浙東與其
舅姑夫皆被執既而舅姑與夫皆死主將見婦誓美
欲內之婦號慟欲自殺爲奪挽不得死夜令俘囚婦
人雜守之婦陽謂主將曰以吾爲妻妾者欲令終身
善事也吾舅姑與夫死而不爲之衰是不天也不天
之人將焉用之願請爲服期卽惟命苟不聽我我終
死耳主將恐其誠死許之然防守益嚴明年春師還
挈行至嶧縣青楓嶺下臨絕壑婦待守者少懈嚙指
出血書字山石上南望慟哭自投崖下而死後其血
皆漬入石間盡化爲石天且陰雨卽墳起如始書時

元至治中旌爲貞婦郡守立石祠嶺上易名曰清風
嶺

詩不幸元兵入浙東舅姑夫壻陷軍中自將誓美
知難免百計陽言請服終 行至青楓險且危血
書山石獨天知一從慟哭投崖死嶺上清風萬古
吹

왕녕부논송나라님히사름의체니송이망흐샤
에그식부모와지아비다도적의게잡히여죽으
니도적의망쉬녕부의고으물보고갑박하려하
니녕부동곡하고죽으려호대도적이사로잡힌

겨집들로하여곰뉘야로디희니 텡뷔속여골오
디식부모와지아비죽은디거상을아니넵으면
이노하늘을모로미라어디쁘리오원컨대거상
을넵어탈상후에너를조차려니와내말을쫓지
아니면^모참내죽으리라호대도적이죽을가저
히아디허락히디디히기물디옥엄히게하고인
하야제나라호로도려갈시청풍녕에니르러텡
뷔디흰사람이업슬새를타셔손가락을새머러
피를내여돌에글을쓰고남다히를브라며통곡
하고인하여절벽아래셔러져죽으니그후에글

시눈피돌속으로소못저저다돌이되엿다가비
올적이면피도로소사나처음과^뉘더라원나라
적의정표하여텡뷔라고비를세워제하고그
녕일흠을고쳐청풍녕이라하니라

고친청풍은목은
브람이란말이라

처음청풍은프른
단풍이란말이오

梁氏被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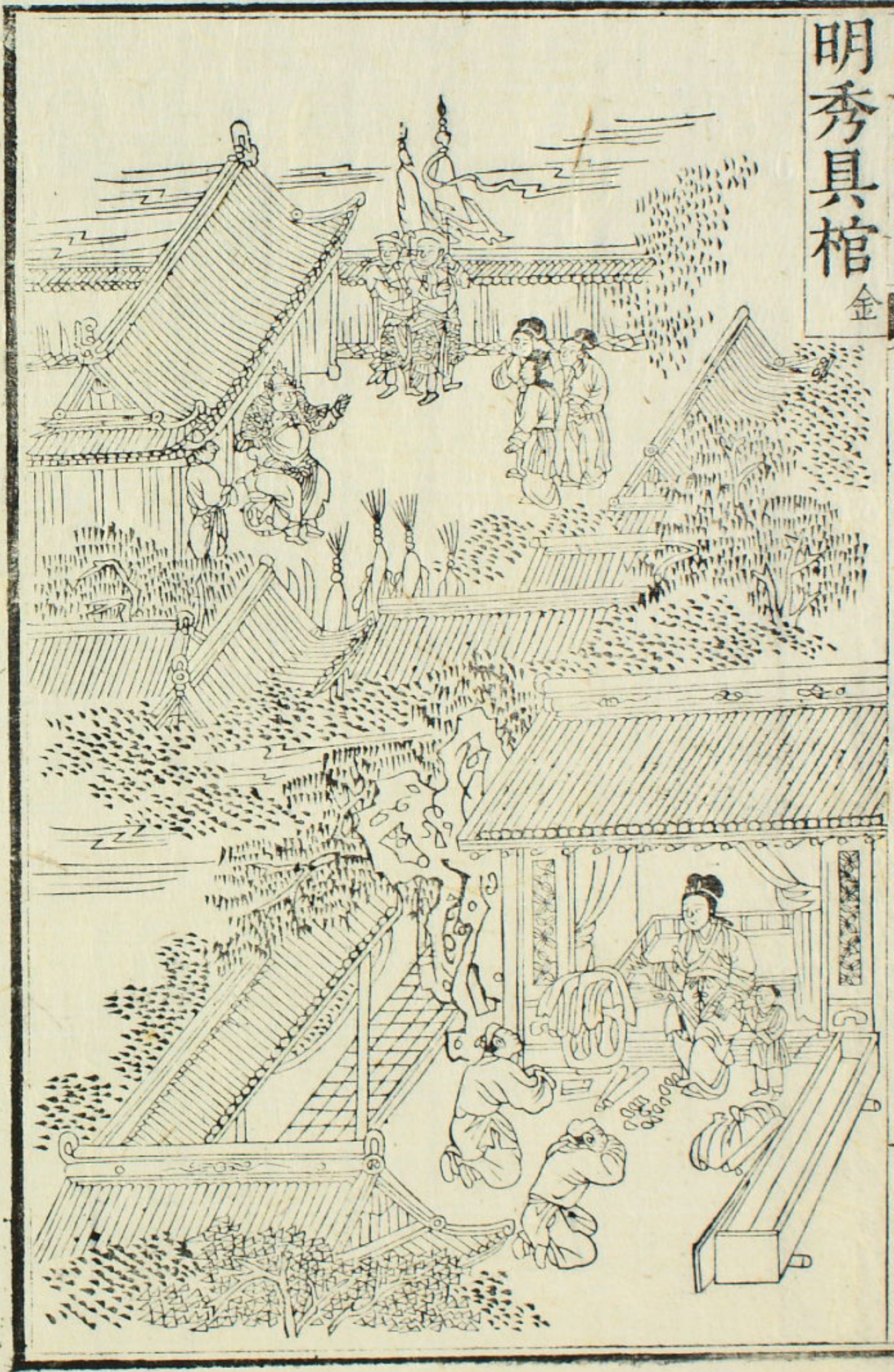
梁氏臨川人歸王氏纔數月會元兵至與夫約曰吾
 遇兵必死義不受汙辱頃之夫婦被掠有軍千戶強
 使從已婦給曰夫在伉儷之情有所不忍乞歸之而
 後可千戶以所得金帛與其夫而歸之并與一矢以
 却後兵約行十餘里千戶即之婦拒且罵曰斫頭奴
 吾與夫誓天地鬼神寔臨之此身寧死不可得也因
 奮搏之乃被殺

詩梁氏于歸數月餘元兵孔熾若乘虛自知未遂
 偕生計誓死蒼天實鑑予 家室俱為虜所擒緩
 辭元是活夫心忘生抗節誰能犯磊落貞姿想至

숙

냥시는송적왕가의체니님천사름이라식집간
디두어들의난을만나지아비와언약하여곧오
디내죽을디언텡도적의게목을밧디아니리라
흐디니부뷔다도적의게잡히여적당이냥시를
겁박하려하니냥시소겨곧오디지아비이시니
도라보낸후에너를조차리라적당이고디듯고
그지아비를금과비단을주고또살어나흘주어
보람삼아길에다른도적이해티못하게하여보
내니냥시그지아비먼리갈만하여적당을슈지

저곧오디죽일놈아내지아비와밍세하여시니
련디귀신이실노아르신디라죽을디언텡엇디
너를조차리오하고인하여범디티다가只춤내
도적의게죽으니라



蒲察氏字明秀完顏長樂之妻也哀宗遷歸德以長樂為總領將兵扈從長樂一子在幼出妻柴氏所生也明秀撫育如已出崔立之變驅從官妻子人自閱之蒲察聞之以幼子付婢僕且與之金幣親具衣棺祭物與家人訣曰崔立不道強人妻女兵在城下吾何所逃惟一死不負吾夫耳汝等惟善養幼子遂自縊而死欣然若不以死為難者年二十七

詩良人扈從返無期義子零丁幼且癡撫育真能如已出生平母道儘無虧 逃難全身計已窮幼兒金幣付家僮自治喪具從容死千載爭欽烈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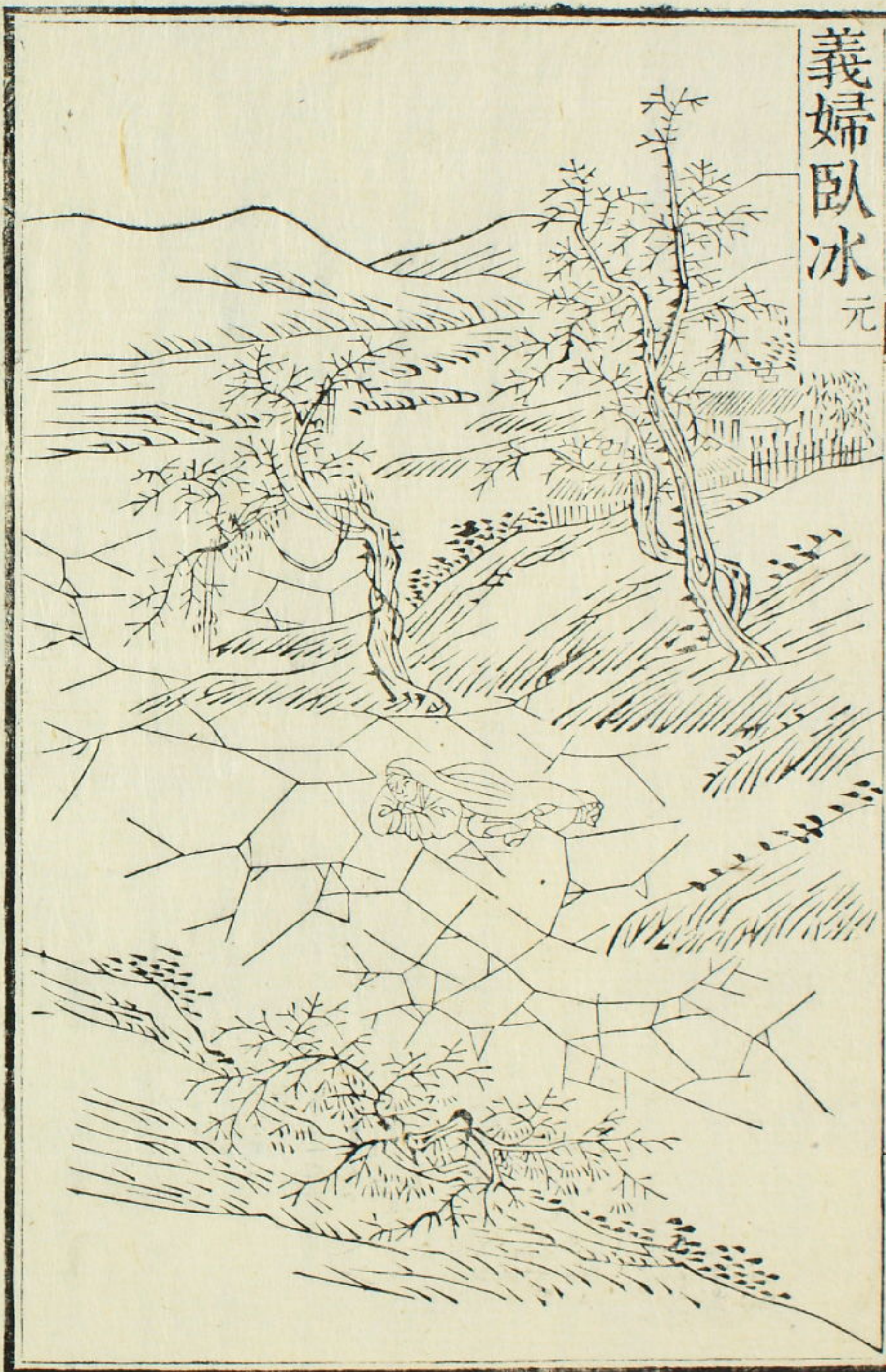
風

포찰시의주는명슈니금나라완안장낙의안히
 라장낙이남군을조차나가고집의어린아들이
 이시니전의내친척시의소성이라명슈스랑
 히기름과출마티히더니이쎄최림이라하는도
 적이니러나모든관원의안히를모라다가얼골
 고으니를즐히는디라포찰시의말을듣고어린
 아들을종의게맛디고지물을만히주고친히관
 광과제물을마초아두고집사람으로더브러영
 결하여올오디최림이무도하야사람의쳐첩을

겁박하고이제군수될거너려성밧기다드라시
 니내어디로도망하리오오직호번죽어내지아
 비를져버리디아니리니너희들은어린조식을
 잘기르라하고드디여목미여죽으니나히이십
 칠세라죽을쎄흔연하야쇼곰도어려온빛치업
 더라

義婦臥冰

元



張義婦濟南人歸里人李伍伍與從子零戍福寧未
幾死戍所張養舅姑甚至父母舅姑病凡四割股肉
救不懈及死喪葬無遺禮既而歎曰妾夫死數千里
外不能歸葬者以舅姑父母在無所仰故也今父母
舅姑已死而夫骨暴棄遠土妾敢愛死乎乃臥積冰
上誓曰天若許妾取夫骨雖寒甚當得不死踰月竟
不死乃大書其事于衣以行行四十日至福寧見零
問夫葬地則榛莽四塞不可識張哀慟欲絕夫忽降
于童告張死時事且指骨所在處張如言發得之持
骨祝曰爾信妾夫耶入口當如冰雪黏如膠已而果

然官義之上府旌門復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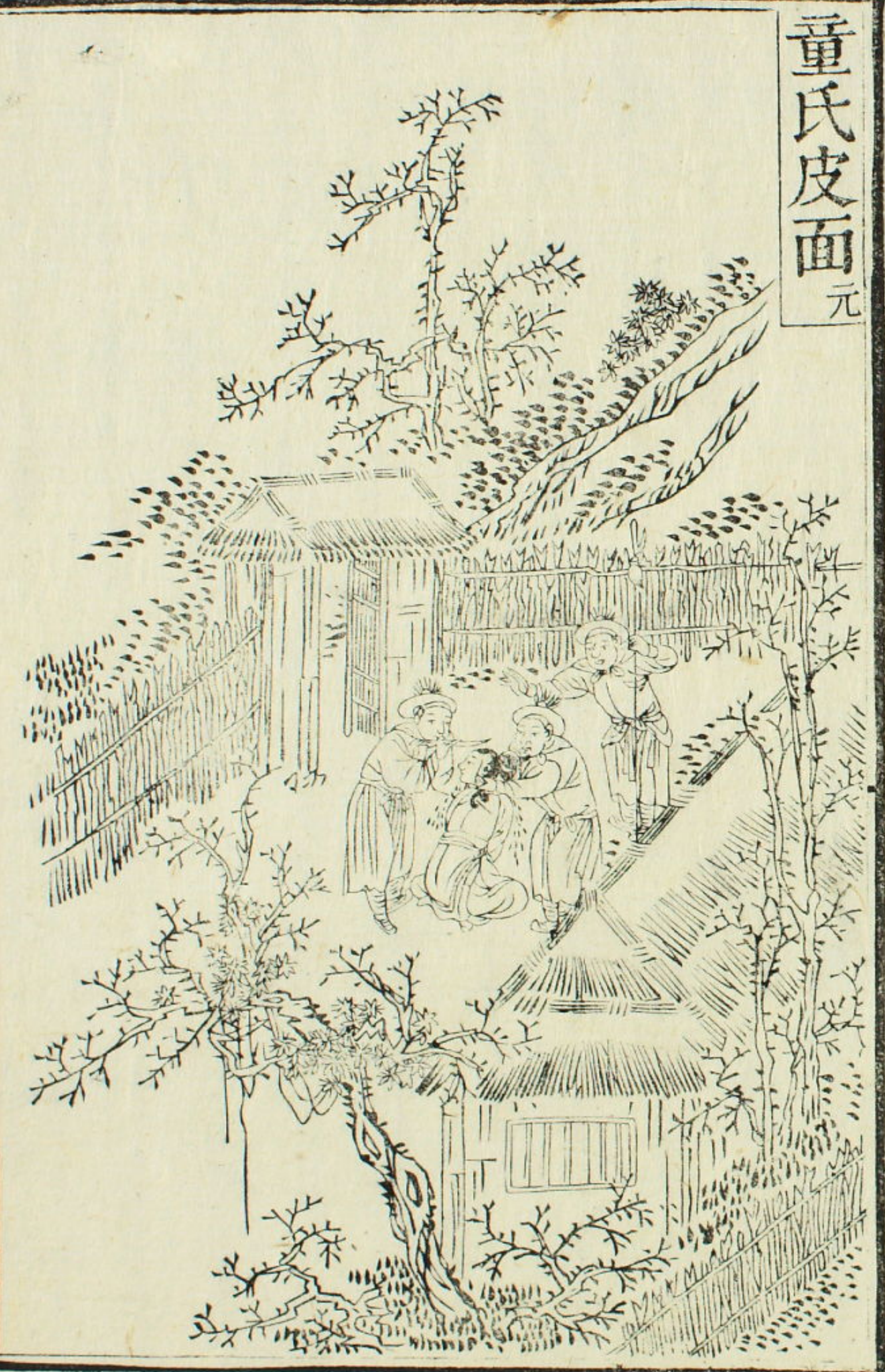
詩公姑父母病難醫四把霜刀剗玉肌豈獨養生
能不懈更治喪祭禮無虧 千里夫屍久未收臥
冰爲誓遂行求至誠能致精靈感果得遺骸葬古
丘

당의부논원나라제남사람이라니오의체되엿
더니지아비죽하로더브리복녕싸히슈자리사
다가그곳에서죽으니당시식부모봉양하기를
지극히하고부모와식부모병들매네번다리슬
을버혀먹여구병하더니죽은후상장을네로극

진히하고탄식하여곧오디내지아비수천리밖
괴셔죽으되도라와영장하디못호문구고와부
뫼이셔밭들리업스미라이제부모구피이디죽
고지아비히골이먼싸히브러시니내엇디죽기
를앗기리오하고이에빠힌어름우히누어밍세
하여곧오디하늘이만일내지아빅썬어드리
라하시면내어러죽디아니하리라하고흔돌이
넘드록누어시되죽디아니하거늘이에그일을
웃우히써서납고길을나행하연디스십일만에
복녕싸히니르러죽하를만나지아비무리인곳

을 마르치거늘 희골을 초저려하니 가식됨불이
 네 녀히 막히여 분변홀길히 업스니 당시의 통호
 여거의 죽게 되었더니 지아비 병흔이 혼아희게
 느려당시드려 죽던 말과 희골잇는 곳을 니르거
 놀그말대로 초자희골을 어더가지고 비러 온
 디진산로내지아비희골이면 입에 다혀어롭
 티치고 부리코티 북닐라하니 과연 그리호더라
 나라히 그 집을 정문호고 복호호니라

童氏皮面 元



俞士淵妻童氏嚴州人姑性嚴待之寡恩童柔順以事之無少拂其意者至正十三年賊陷威平官軍復之已乃縱兵剽掠至士淵家童以身蔽姑衆欲汗之童大罵不屈一卒以刀擊其左臂愈不屈又一卒斷其右臂罵猶不絕衆乃皮其面而去明日乃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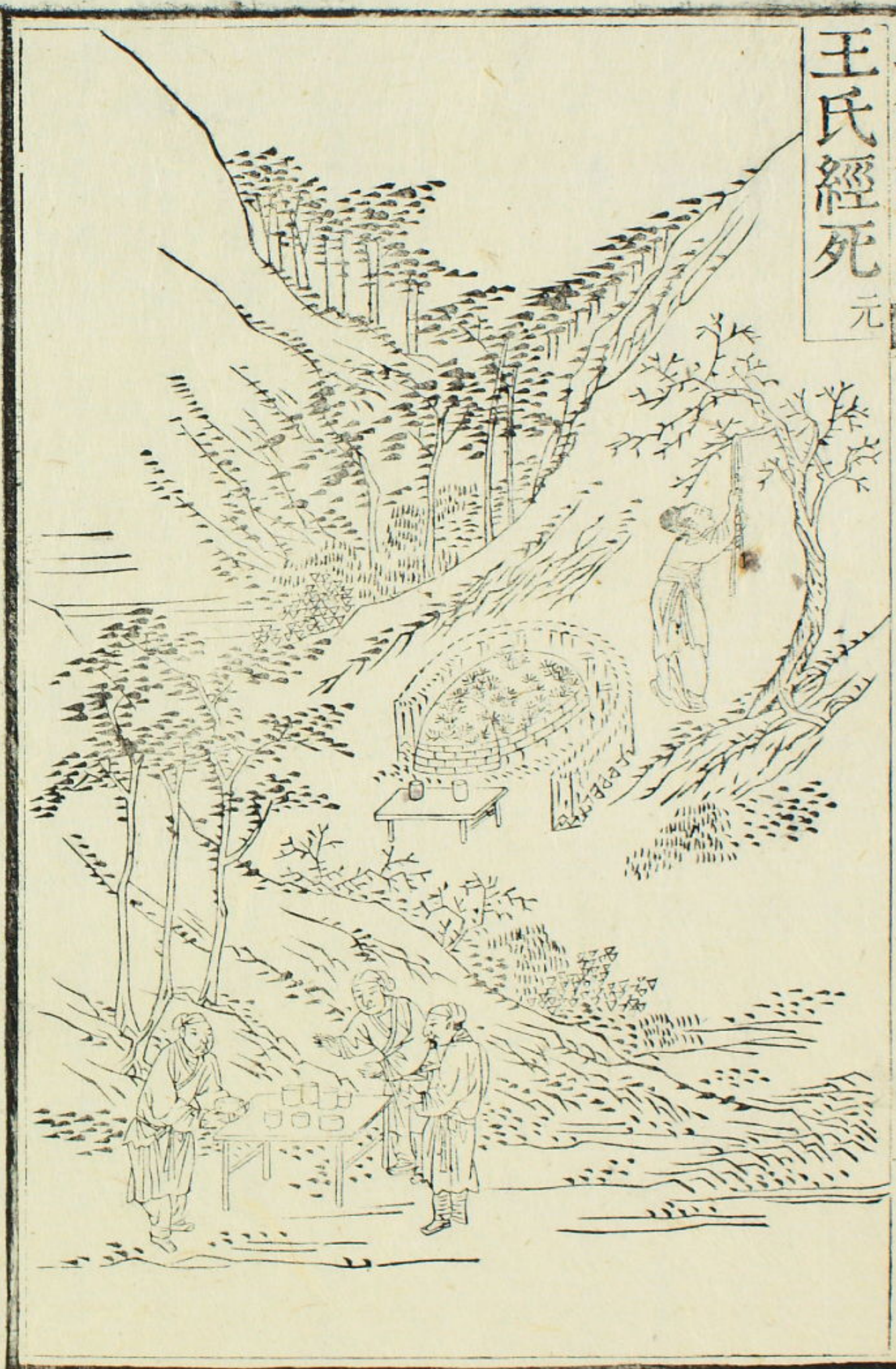
詩天性堅貞婦道成事姑承順發深情官軍剽掠無人過能捍艱危不愛生 衆兵交刃入門闌罵賊危言出肺肝斷臂猶能終不屈每令聞者髮衝冠

원나라유스연의쳐동시느엄쥬사름이라셔

미성정이엄하여동시를박디호디더옥공순하
여그뜻을거스리디아니하더니원말에도적이
드러오매관군이회복하고인하야노략하여스
연의집애니르니동시몸으로셔어미를마리온
대여러군시동시를핍박하려하거늘동시크게
썩짓고굴티아니하니훈군시칼을드리좌편폴
을버히되더옥굴티아니하고또훈군시우편폴
을버히되썩짓기물마디아니하대모든군시그
늦가죽을벗기고가나이트날죽으니라

五倫行實圖
王氏經死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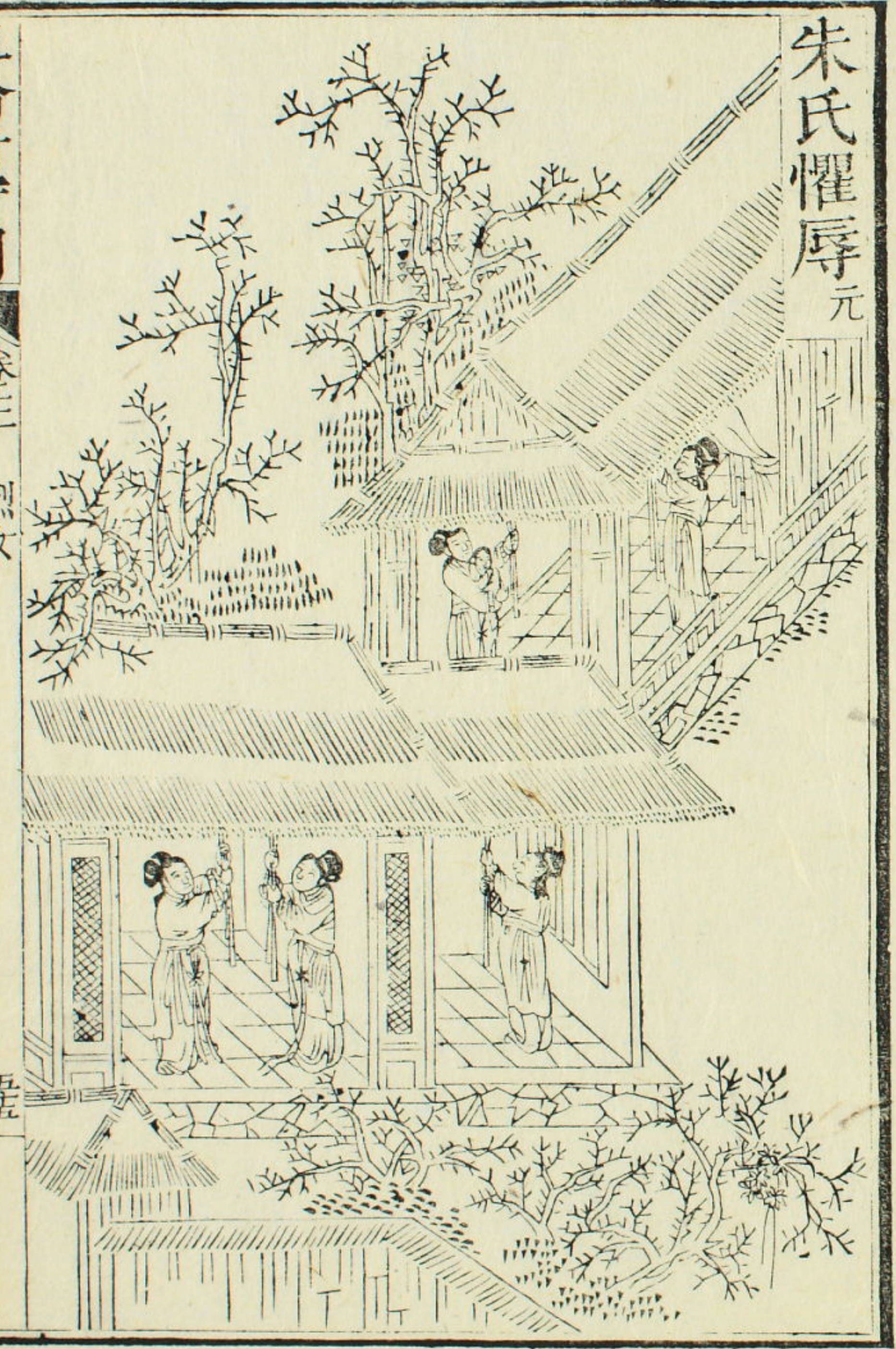


惠士玄妻王氏大都人士玄病革王曰吾聞病者糞
苦則愈乃嘗其糞頗甘王色愈憂士玄囑王曰我病
必不起前妾所生子汝善保護之待此子稍長即從
汝自嫁矣王泣曰君何爲出此言邪設有不諱妾義
當死尚復有他說乎君幸有兄嫂此兒必不失所居
數日士玄卒王居墓側蓬首垢面哀毀逾禮常以妾
子置左右飲食寒煖惟恐不至歲餘妾子亦死乃哭
曰無復望矣屢引刀自殺家人驚救得免至終喪親
舊皆携酒禮祭士玄于墓祭畢衆欲行酒王已經死
於樹矣

詩病勢纏綿已向深糞甜憂思更欽欽延生閱歲
無他意不負良人囑子心 夫死廬墳正致哀遺
孤亦逝已焉哉終喪便爾自經死親舊無由行酒
杯

원나라혜소현의처왕시논대도사름이니소현
이병이등하거늘왕시곧오던내드르니병든사
름의똥이쓰면낫는다하고그똥을맛보니마시
든디라왕시더욱근심하더니소현이왕시드러
당부하여곧오던내병이반드시니디못홀디라
죽은첩의아들을잘길러라거든리가하여가

라하니왕시울며곧오던그던엇디이런말을하
느뇨그던죽으면내호가지로죽으리내비록
죽어도그던형쉬이시니죽히아히롤기르리라
하더니소현이죽으며왕시무덤것히이셔소세
를폐하고의혜하미네에넘게하고첩아들을것
히두어지성으로기르더니그아히또죽으니우
러곧오던이제는다시비칼거시업다하고여러
번칼을가져스스로먹디르려하거늘집사람이
급히구하여죽디못하고인하여삼년을막하니
친귀다술을가지고소현의무덤에제하더니제



朱氏懼辱元

를 보자 매왕시 이 미 남게 목 미 여 죽 었 더 라

黃仲起妻朱氏杭州人至正十六年張士誠寇杭州其女臨安奴倉皇言曰賊至矣我別母求一死也俄而賊驅諸婦至其家且指朱氏母子曰爲我看守日暮我當至也朱聞之懼受辱遂與女俱縊死妾馮氏見其母子已死嘆曰我生何爲徒受辱耳亦自縊死繼而仲起弟妻蔡氏抱幼子玄童與乳母湯氏皆自縊及暮賊至見諸屍滿室遂盡掠其家財而去

詩兇徒暴橫寇杭州日暮倉皇抱百憂守義輕生求一死清標凜烈照千秋 臨危孰不欲安全母子俱亡最可憐俄頃數人相繼死一家高義耀青

篇

원나라 황통과의 처유시논 항유사름이니 지렁
원순테대
년호라 십육년에 도적량소성이 항유를티니그
설이어미드러닐오디도적이 장춧니를디라내
어미를니별하고호번죽으려하느이다하더니
이응하여도적이 모든겨집을모라와유시모녀
를맛쳐졸오디날을위하여덕희여시라내져녀
에도라오리라하니유시욕불가두려설로터브
러흠서목미여죽으니첩풍시유시모네다죽으
를보고탄식하여졸오디내산들무엇하리오호

갓목을 불사름이라 하고 또 훈목 먹여 죽고 등귀
의테수채시어린아들을안고유모랑시로터브
러다목미여죽으니저녁에도적이도라와죽엄
이집에 마득함을보고그집지름을노략하여가
니라

翠哥就烹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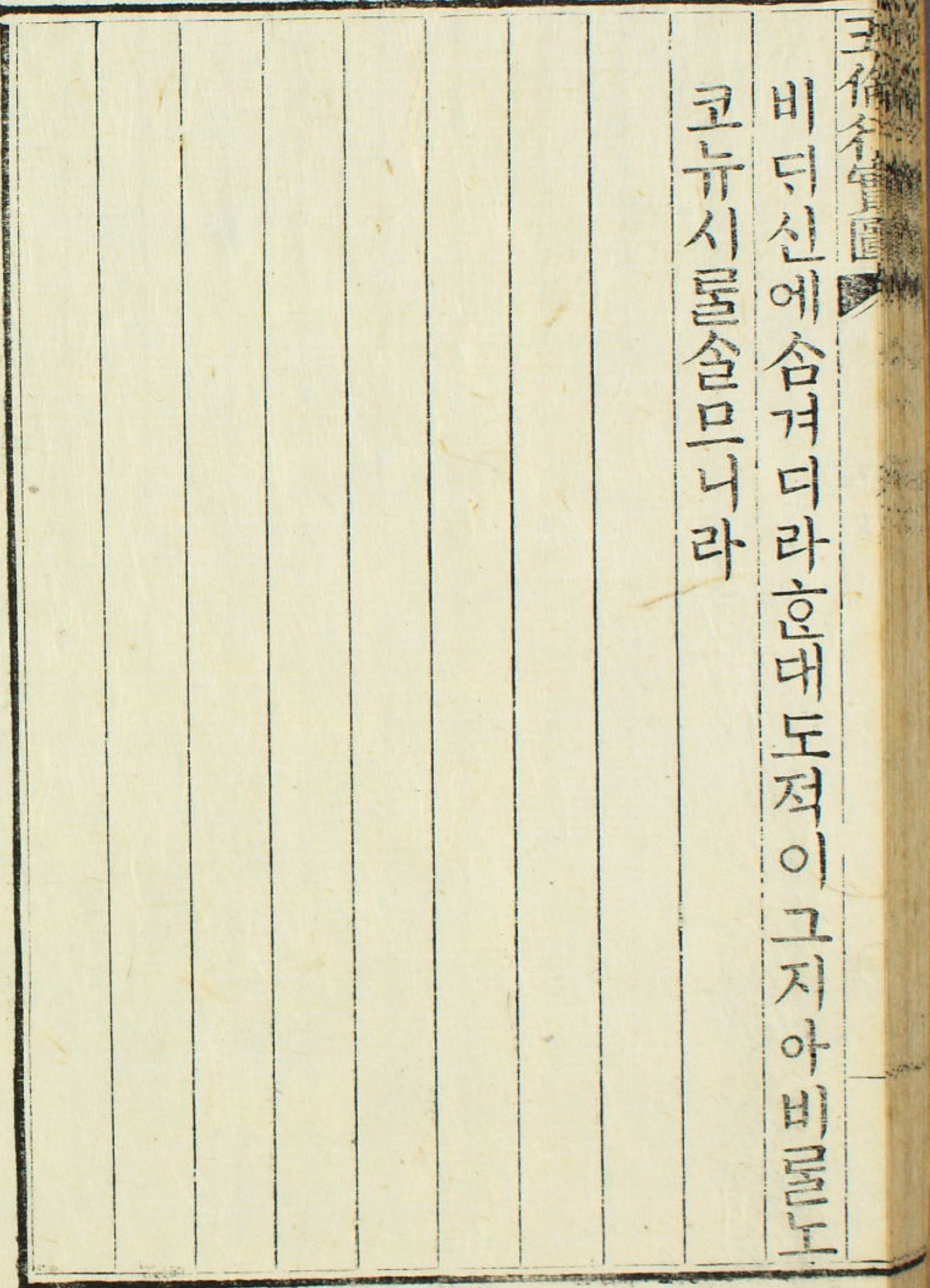
李仲義妻劉氏名翠哥房山人至正二十年縣大饑平章劉哈刺不花兵乏食執仲義欲烹之仲義弟馬兒走報劉氏劉遽往救之涕泣伏地告於兵曰所執者是吾夫也乞矜憐之貸其生吾家有醬一甕米一斗五升窖于地中可掘取之以代吾夫兵不從劉曰吾夫瘦小不可食吾聞婦人肥黑者味美吾肥且黑願就烹以代夫死兵遂釋其夫而烹劉氏

詩元季年饑人起兵人將相食競紛爭釋夫心切生堪捨慷慨持身自就烹 代夫身命即捐軀遂使奸兇噬我膚高義感人人自服聞風百世盡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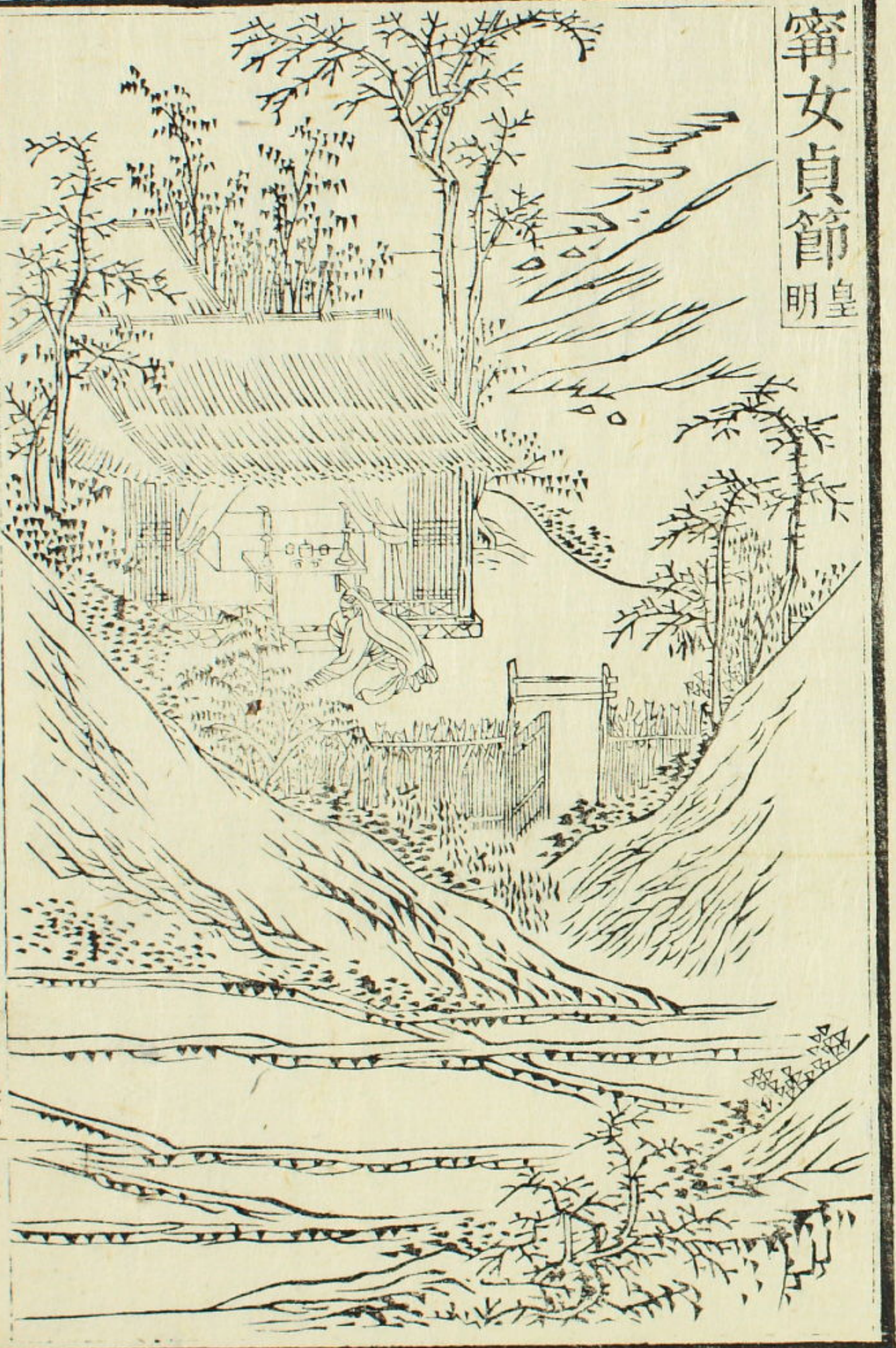
吁

원나라니등의의쳐뉴시의일홍은취개니방산
사람이라지뎡이십년의크게흉년드러도적이
군냥이업스니적양이등의를잡아슬마먹으려
하거늘뉴시싸히업디여올며비러온오디내지
아비를살오면내집외양흔독과빨흔말맛되를
싸속에무더시니다가지라호디도적이듯디아
니하거늘뉴시큰오디지아비는여위고져그니
먹업즉디아니하디라내드르니겨집이슬셔고
검으면마시조라하니내슬셔고검은디라지아

비더신에 숨겨 디라 훈대도적이 그지아 비를노
코뉴시를 솔므니라



寧女貞節 明皇



五倫行實圖
寧氏女許嫁劉真兒未嫁而真兒死寧氏年十六聞訃哭甚哀既而謂父母曰古云烈女不更二夫吾雖未與之醮然媒妁聘幣父母之命皆已定矣今不幸而死其父母老無所依吾豈忍背之操他人家箕箒耶遂請往夫家侍養舅姑父母初未之許寧請益堅卒許之寧至其家哭臨葬祭無違禮執婦道甚恭織紵以供甘旨如是者凡五十二年事聞詔旌表其門曰貞節

詩已成媒聘有歸期不幸夫亡未醮時何忍背之辭甚切始終喪祭禮無虧 五十餘年奉舅姑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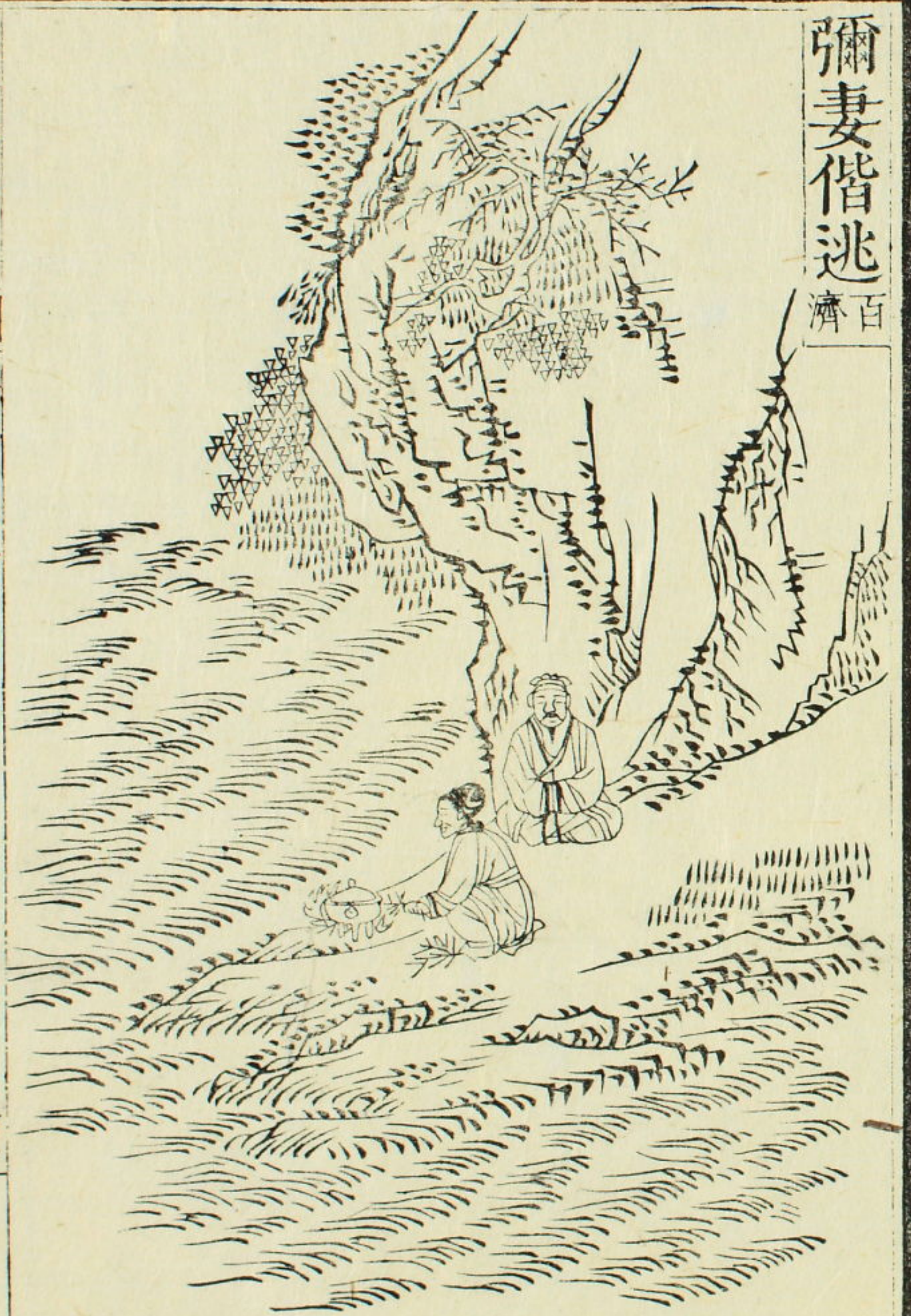
生志節竟無渝盛朝旌表褒嘉至千載貞名孰與俱

녕시는 황명사름이니 뉴진으 와 혼인을 녕하
엇더니 진의 죽으니 이 세에 녕시나 히 십육세라
부음을 들듯 고 슬피 우다가 부모의 게고 하여 곧 오
디 벋말에 날 오디 벋녀는 두지아 비물섬기 디아
닛는다 하니 내 비록 뉴가 로터 브러 초레는 아 니
하 여 시나 둥의 룰 흥하 고 폐벽을 바다 시니 부모
의 명이 이 덕 녕하 엿는다 라 이 제 블 흥하 여 죽고
그 늻은 부모의 탁 홀 디 업스 니 내 엿디 타 마 버 리

고다른사람의게가리오청컨대뉴가에가식부
 모를봉양함여디이다흐대부되처음은듯디아
 니터니녕시더옥근청함거늘只춤내허락함니
 녕시뉴가에가셔지아빅빈소에올고장소와제
 를네로함고며느리도리를극진히함여질삼함
 여감지 부모피드리
 는음식이라 룰बाट드러이러듯함기오십이
 년이라그문에정표함야곧오디텅절이라함다

彌妻偕逃

濟百



五倫行實圖
都彌妻美麗亦有節行蓋婁王聞之語都彌曰婦人雖貞在幽昏無人之處誘以巧言則不動心者鮮矣都彌曰若臣妻雖死無貳王欲試之畱都彌以事使一近臣假王衣服馬從夜抵其家謂其婦曰我聞爾好與都彌博得之來日入爾爲宮人遂將亂之婦曰王無妄語吾敢不順請大王先入室吾更衣乃進退而飾一婢薦之王後知見欺怒甚誣都彌以罪矐其兩眸子置小船泛之河上遂引其婦強欲淫之婦曰今良人已失獨身不能自持况爲王御豈敢相違今有所避請俟他日王信而許之婦便逃至江口不能

渡呼天慟哭忽見孤舟隨波而至乘到泉城島遇其夫未死掘啖草根遂與同至高勾麗終於羈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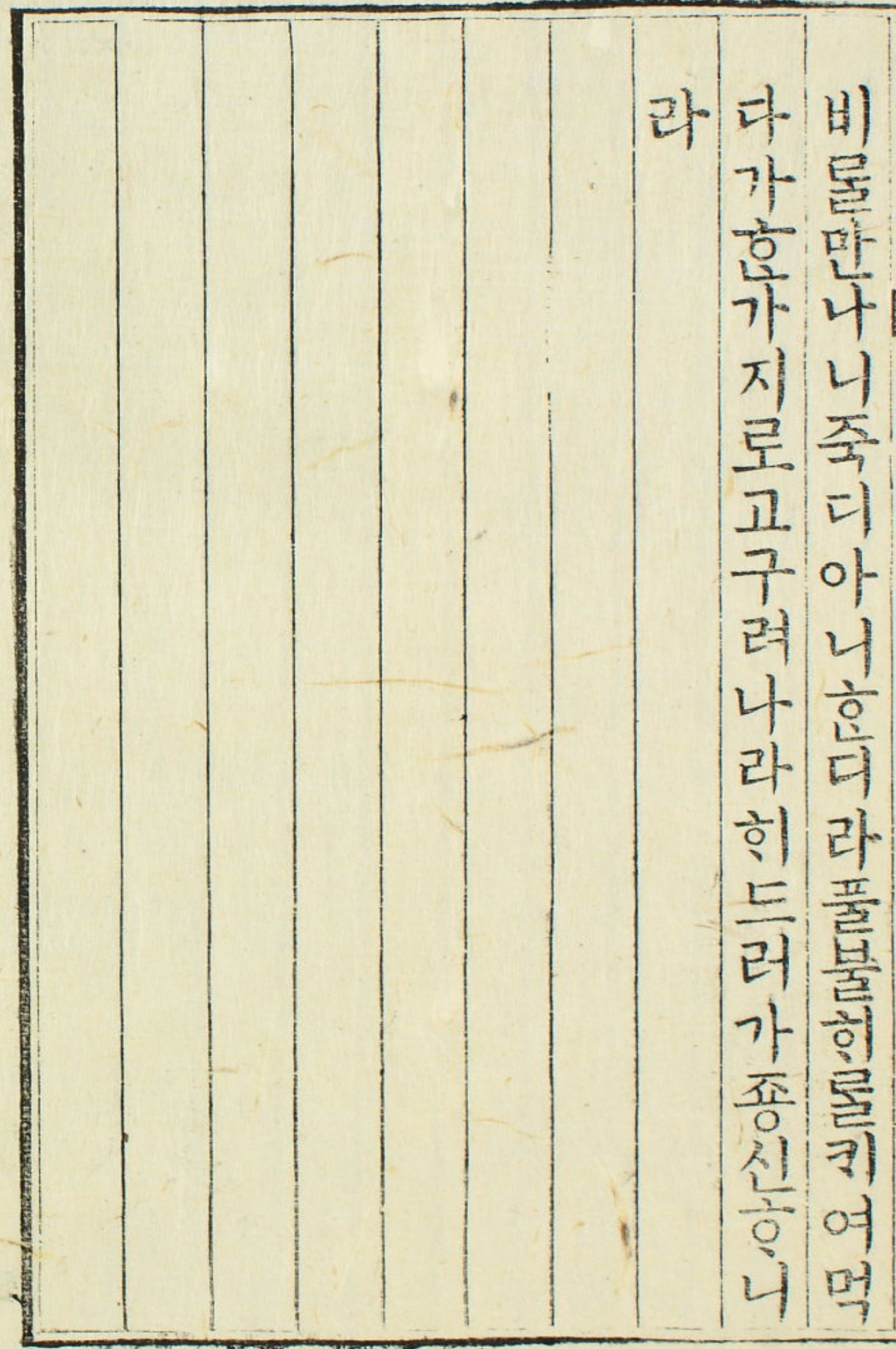
詩敢矐雙眸放大河國君威柄奈如何我儀我特
眞天合縱備宮人矢靡他 詭言逃走出重闔泣
涕漣瀉傍水濱天地神明皆佑助泉城島上見良
人

도미는빅테나라사람이니안히얼골이아름답
고절히이잇더니빅테왕이듯고도미드러닐러
큰오디부인이비록덩절이이사나그응하고사
름업는곳에서도흔말로다래면다음을동티아

니흥리업니나라도미골오디신의쳐거드니는
비록죽어도변티아니흥리이다왕이시험흥고
져흥여도미롤머므러두고흥신하로흥여곰왕
의오솔납히고왕의몰을드고밤에그집의가도
미의쳐드려닐오디내네고으물듯고도미로더
브러당기두어나기흥여너롤어더시니너일너
롤드려궁인을삼으리라흥고드디여겁박흥려
흥니체골오디왕은망녕된말솜이업니내엇
디쇼쥁흥디아니리오청권대왕은몬져방에드
르쇼셔내오솔마라납고오리이다흥고밧그로

나가쥁흥나홀쑤며드러보내니왕이후에속은
줄알고노흥여도미의죄롤업어두눈을싸히고
비에시러몰의셔이고그쳐롤잡아다가겁박흥
려흥니체골오디이제는지아비롤일허시니능
히홀로잇다못홀디라흥를며왕을되시물엇디
거스리리오오늘은연괴이사나다른날을기드
리쇼셔왕이밋고허락흥거늘마만이다망흥여
몰마에가능히건너디못흥니하늘을브르며통
곡흥더나홀연이의로온비물결을쇄와니르거
늘그비롤드고천성도라흥는섬에다드라지아

비물만나니죽디아니흐디라
플물희물키여먹
다가흐가지로고구려나라
히드러가종신호니
라



崔氏奮罵
高麗



崔氏靈巖士人仁祐女也適晉州戶長鄭滿生子女
四人其季在襁褓洪武己未倭賊寇晉闔境奔竄時
滿因事如京賊攔入里閭崔年方三十餘且有姿色
抱携諸子走避山中賊四出驅掠遇崔露刃以脅崔
抱樹而拒奮罵曰死等爾與其汚賊而生寧死義罵
不絕口賊遂害之斃於樹下賊携二子以去第三兒
習甫六歲啼號屍側襁褓兒猶匍匐就乳血淋漓入
口尋亦斃焉後十年己巳都觀察使張夏以聞乃命
旌門蠲習吏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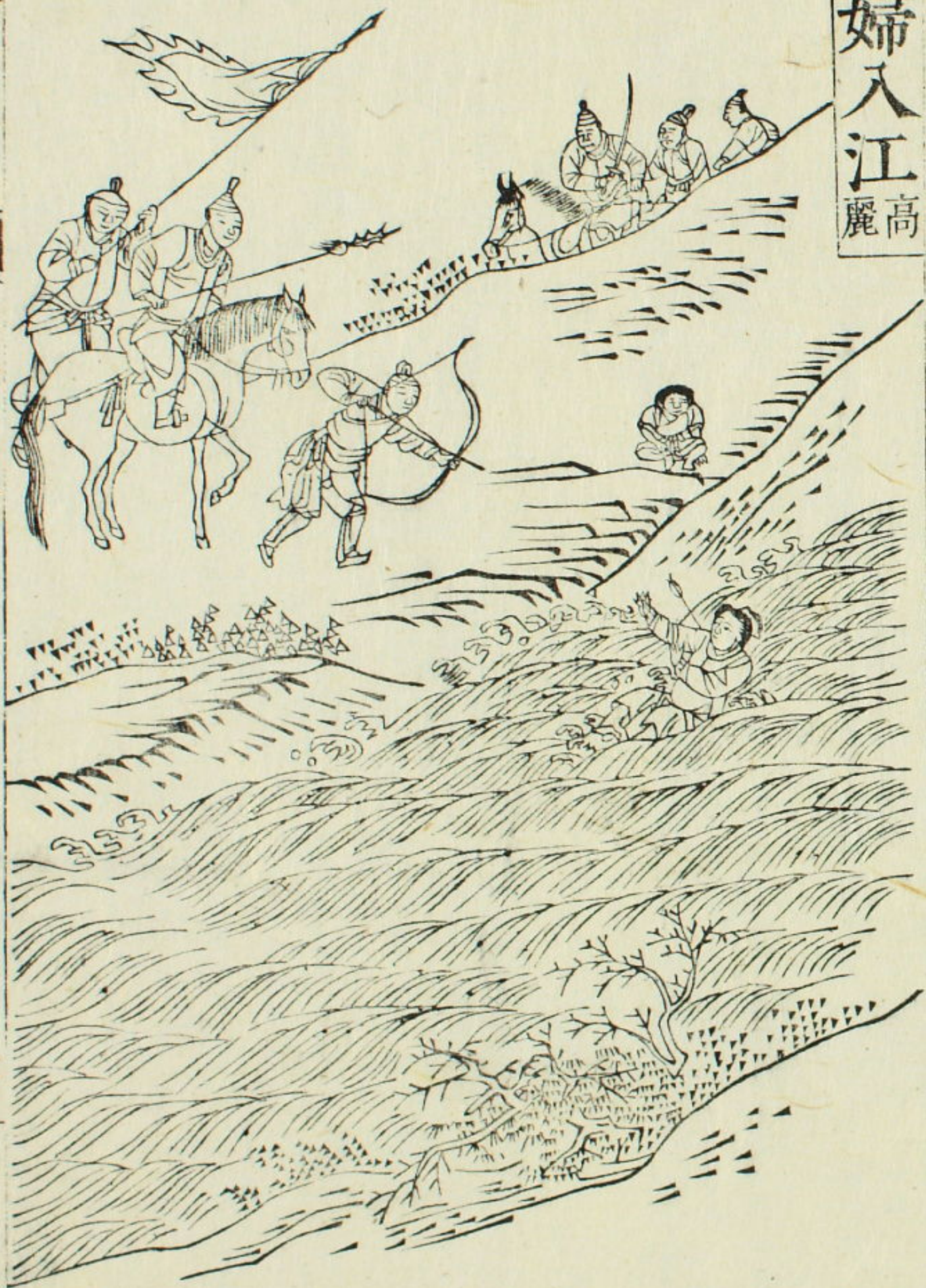
詩良人上計赴王京倭寇搶攘陷邑城汚賊幸生

寧死義中心取舍已分明 賊勢縱橫闔郡驚携
兒被擄若爲情可憐抱樹捐生處風響依稀罵賊
聲

최시는고려적병암선비인우의딸이니 단쥬호
당덩만의체되여네즈녀를나코사더니왜적이
단쥬를타니고을사람이다느라나느니라덩만
은셔올가고도적이녀염에드리오나최시나히
점고주식이잇더니여러주식을드리고산등에
피란하엿다가도적을만나갈로저히고갑박하
려하니최시나모를안고썩지저곤오디도적의

게더러이고사느니출하리죽으리라호고셔짓
 기를그치디아니호대도적이드디여나모아래
 셔죽이고두죽식을잡아가니셋재아돌숨은나
 히게요늑세라죽엄것히셔울고강보에아히는
 오히려괴여가젖을생라먹으니피흘러입으로
 드는디라그아히죽시죽으니라그후십년만에
 감소양해나라히장계호여정문호고습의구실
 을더러주니라

烈婦入江 高麗



王伯行集圖
裴氏京山人進士中善女也既筭適郎將李東郊善
治內事洪武庚申倭賊逼京山闔境擾攘無敢禦者
東郊時赴合浦帥幕未還賊騎突入裴所居里裴抱
乳子走賊追之及江江水方漲度不能脫置乳子岸
上走入江賊持滿注矢擬之曰而來免死裴顧罵賊
曰何不速殺我我豈汚賊者邪賊射之中肩再發再
中遂沒於江中體覆使趙浚上其事旌表里門
詩島夷來逼孰能當闔境蒼皇走且僵忍見乳兒
呱岸上自知難脫赴滄浪 倭寇由來性不仁那
知烈婦行真純灘聲千載猶悲咽到此無人不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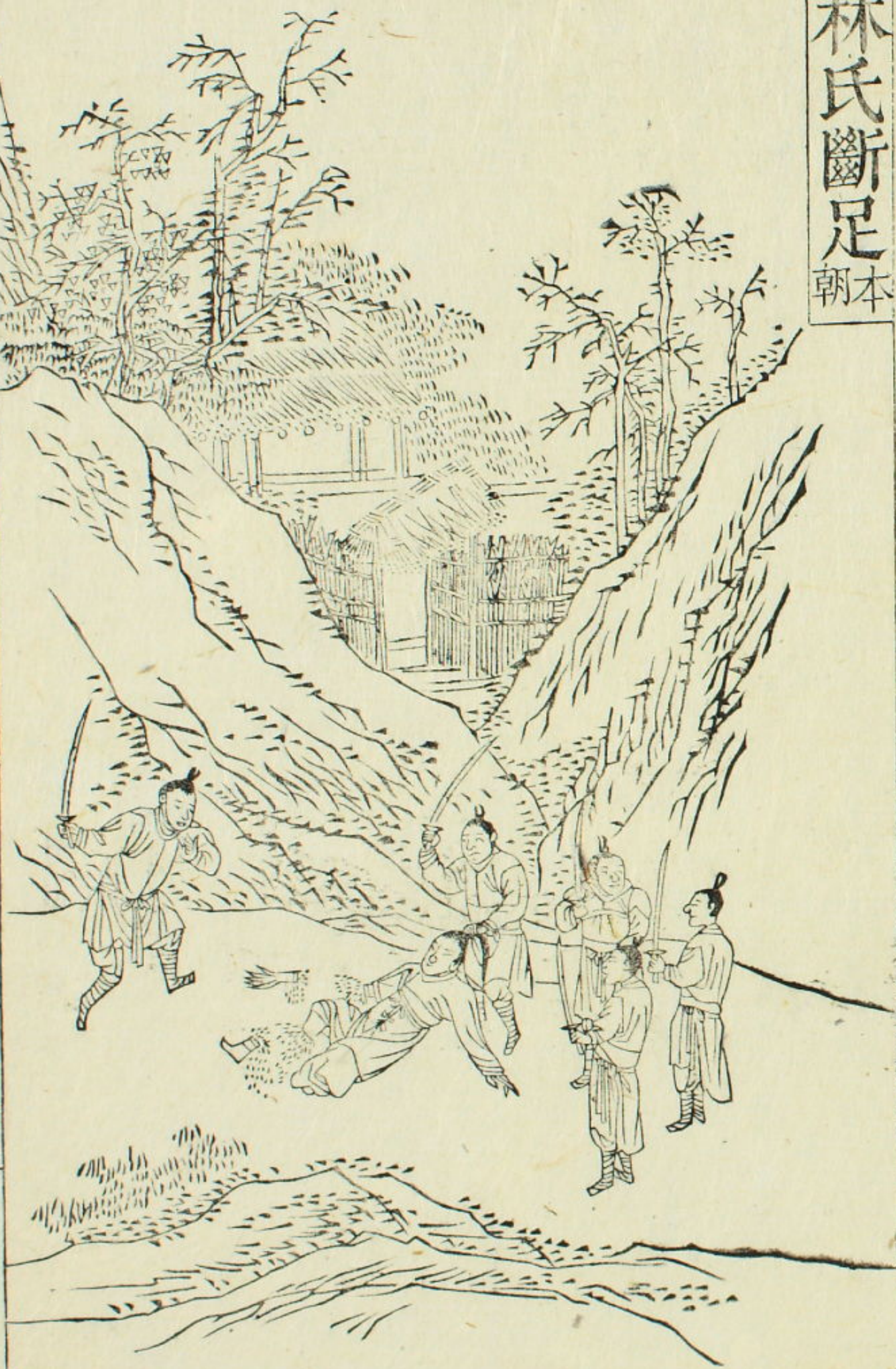
神

비시논고려적경산사람이니진소동선의설이
라낭당벼슬은논니동교의체되어니덩을잘다
스리더니왜란을만나지아비빠흠에가고혼자
이실때에도적이집의드러오거늘비시어린조
식을안고드라나강마에다드르니도적이설와
오거늘비시면티못할줄알고조식을언덕에노
코강에드라들려하니도적이할에살을먹여보
려하며닐오디네오면살리라비시도라보며크
게사지저큰오디날을설리죽이라내엇디도적

의게 더러이리 오흐대도적이엇게를 밧아 두 번
마쳐물속의셔 죽으니 테복스도준이나라히알
외여 정문하니라

林氏斷足

朝本



林氏完山府儒士桓之女也適知樂安郡事崔克孚
倭寇本府林被執賊欲汙之林固拒賊斷一臂又斷
一足猶不屈被害

詩林氏完山禮義家倭奴突入肆兵戈兇渠白刃
焉能挽之死心堅矢靡他 貞烈高風舉世驚臨
危捨命不偷生一身取舍分明甚義重方知死亦
輕

님시는 본도전주선비거의살이니낙안원최
극부의체되었더니왜적이잡아핍박하고저하
니님시죽디아니호대도적이호몰과호다리를

버히되오히려글티아니호고죽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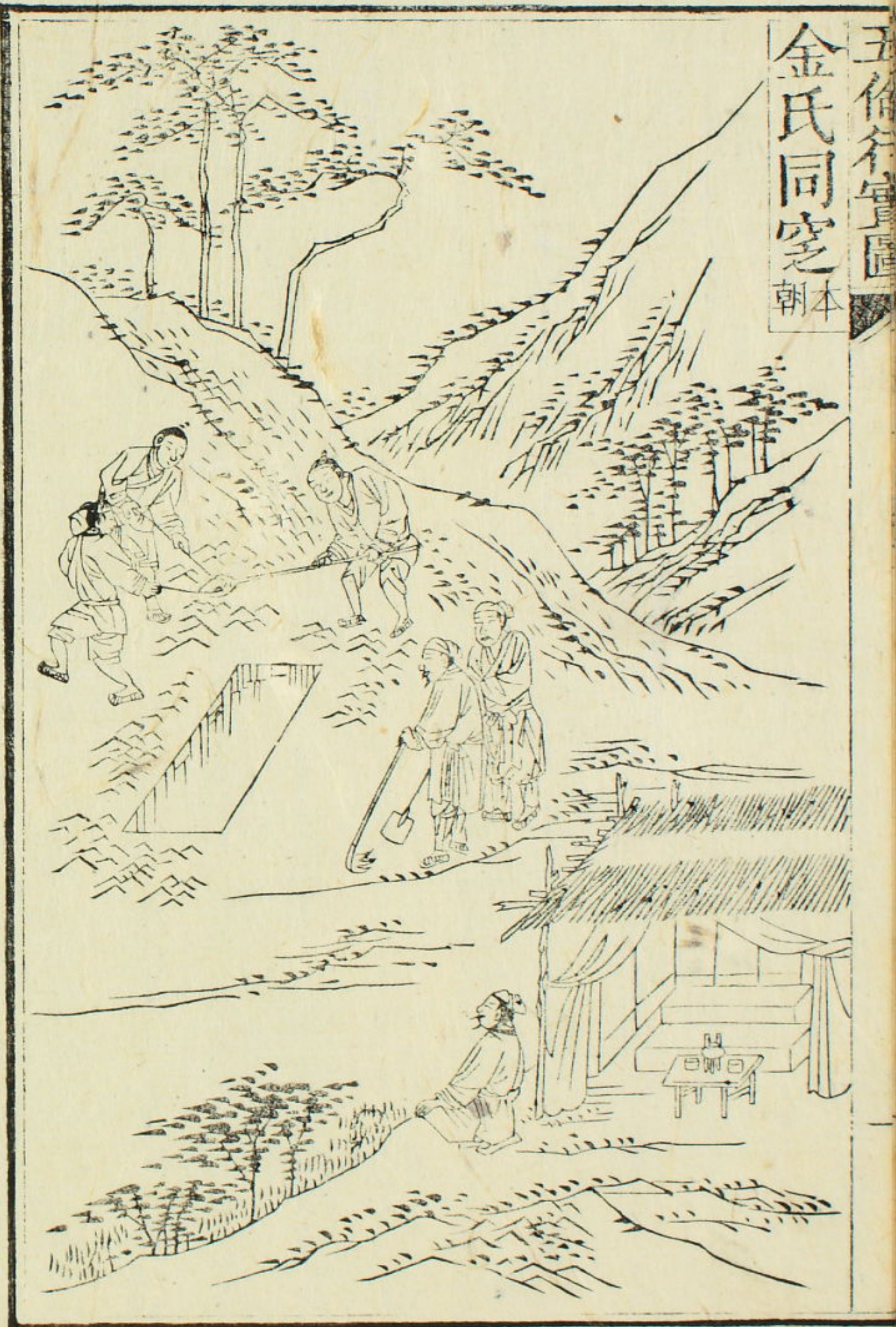
金氏安東人適散員俞天桂洪武辛巳天桂當行戍
 謂其妻曰今日吉吾將出宿於外其妻曰吾亦出宿
 矣遂入室裝糧夜半忽有人驚呼聲婢僕皆縮頸金
 挺身出虎已攫夫去金把木弓叫呼而前左手執夫
 右手撲虎幾至六十步許虎委之而止金曰爾既攫
 我夫欲并取我邪虎乃去夫氣絕金負而歸家黎明
 夫甦其夜虎又至唐突大吼金又開門荷杖語虎曰
 爾亦含靈之物何若是之甚乎虎嚙舍傍梨樹而去
 樹乃枯

詩慇懃入室為裝糧出戍良人宿舍傍夜半忽為

號虎攫追奔手撲俾無傷 大吼重來最可驚開
門荷杖語丁寧縱然嚙樹終無害始信毛蟲亦性
靈

김시는 본도안동사람이라 유련계의 체되었
더니련계슈자리살라갈시쳐드러닐러온오디
오늘이도흔날이니나셔자고가려호노라체온
오디나도또호나가자리라호고집에드러와항
장을출히더니밤중에홀연사람이급히웨는소
리잇거늘김시놀나내드라보니범이보셔그지
아비를무러가논디라김시활을가지고소리호

고드라드러호손으로지아비를잡고호손으로
범을티며거의늑십보를니르니범이지아비를
노코물러안거늘김시곧오디네날을드자물고
져호는다호니범이드라나고지아비는귀절호
엇거늘김시업어다가구원호여셔여났더니그
날밤에범이또와셔소리호거늘김시문을열고
막대들고범드러닐오디네또호녕들이라엇
디이러드시심호노호대범이집알피비남글므
러너홀고가니그남기인호여드르더라



金氏豐山人其夫李樞墜馬死金號咷擗踊抱屍經
 三日夜及殯益自哀慟踰月不食惟啜水而已父母
 喻之曰食而哭於義何害金曰非哀而不食自不思
 食耳應是疾也至五十三日而死年二十父母憐之
 同穴而窆

詩夫因馬蹶忽昇屍擗踊號咷日抱持不食數旬
 惟啜水竟捐軀命事堪悲 性善由來見四端人
 能踐履最爲難豐山一女知偕死同穴千秋得所
 安

김씨는 본도 풍산 사람이니 그지아비니 강이

물게셔러져죽으니 김시죽음을안고쉬놀며을
고들이넘드룩밥을먹디아니하거늘부되키유
하여골오디먹고울미므어시의예해로오리오
호대김시골오디설워먹디아니미아니라스스
로밥싱각이업스니응당병인가하느이다하더
니오심삼일만에죽으니나히이십이라부되블
상이너겨부쳐를합장하니라

五倫行實圖卷第三

